朝鮮日報
夕刊
十三日(月)
本紙夕朝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朝光(月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幼年(同上)

柳韓洋行 京城·上海·大連

海軍陸戰隊安田部隊 遠東競馬場占領

【上海十三日發同盟至急報】第○艦隊報道班 午前十時發表＝海軍陸戰隊 安田部隊는 十三日早曉부터 攻擊前進을 開始하야 午前八時 遠東競馬場을 確實히 占領하엿다

【上海十三日發同盟】第○艦隊報道班 午前九時發表＝海軍陸戰隊 安田部隊는 今曉부터 市政府南方의 敵에 對하야 攻擊前進을 開始하야 强固한 敵의 防禦陣을 破壞하고 午前八時(日本時間) 遠東競馬場을 占領하야 軍艦旗를 飜揚하엿다

競馬場殘敵掃蕩中…

【上海十三日發同盟至急報】陸戰隊柴北部隊는 約一時間에 亘한 早曉戰에서 市政府掩護의 據點으로잇는 遠東競馬場의 敵陣地를 奪取하고 旭光에 軍艦旗를 날리엿다 目下附近의 殘敵을 掃蕩中인데 이戰鬪에서 敵兵數名을 捕虜하고 武器多數를 鹵獲하엿다

海軍○○驅逐隊 排牙山砲臺爆破 廣東驅逐隊도砲擊

【東京電話同盟】海軍省副官談 十三日午前十一時三十分發表＝我○○驅逐隊는 昨十二日 正午지나 바이야스灣 排牙山砲臺를 砲擊하는 同時에 陸戰隊를 上陸시켜 野砲二門을 破壞하고 一門을 鹵獲하엿다 그런데 砲擊에 依하야 同砲臺火藥庫는 火災를 이르키여 完全히 爆破되엿다 同隊는 다시 午後六時지나 平海의 廣東海軍 驅逐隊를 砲擊하야 이를 破壞하엿다

【馬公十三日發同盟】馬公要港部發表＝驅逐艦○○及○○은 十二日 午前十一時부터 午後一時半에 亘하야 바이야스灣을 砲擊하고 守備兵을 掃蕩한後 陸戰隊를 上陸시키여 敵의 野砲二門을 破壞하야 이를 海中에 投棄하고 또 一門을 破壞하고 同灣東側高地에 構築中인 砲臺를 攻擊하야 토치카를 破壞하고 彈藥庫를 完全히 爆破하엿다 我方에는 損害가업다

平海欣街無電臺爆破

【馬公十三日發同盟】馬公要塞司令部發表＝驅逐艦○○及○○은 十二日 午後六時三十分 平海欣街의 廣東海軍特設 無電臺를 砲擊破壞하엿는데 命中彈은 十發이다 同無電臺는 使用不可能으로될模樣이다 我方에는 損害가업다

支那空軍爆擊 我病院船에命中

【上海十三日發同盟】病院船朝日丸은 昨十二日午後八時頃揚子江一航行中人道를 無視한支那軍飛行機의空襲을바더 爆彈은同船에命中되엿다 그런데 人命에는 損傷은업섯스나 船體에는 多大한 損害를蒙하엿다

暴戾한敵軍 朝日丸爆擊

【上海十三日發同盟】午前十一時 第○艦隊報道班發表 昨夜八時半吳淞前面에서 我病院船朝日丸은 再次暴虐한 支那軍의爆擊을蒙하엿다 多幸히人命에는 損害가업스나赤十字旗를揭揚한 病院船에對한 支那軍의再次의非文明非人道的行動에는容許하지못할바가잇다

敵砲兵陣地와 閘北地帶爆擊

【上海十二日發同盟】○○艦隊報道部十二日午後八時二十分發表 海軍航空隊는 十二日江灣鎭楊行鎭 上海市政府附近 浦東及閘北포켓트地帶의 敵과 敵砲兵陣地에對해 猛烈한 爆擊을敢行한다

秩父宮妃殿下 倫敦에御着

【倫敦十二日發同盟】秩父宮妃殿下께서는 背宮殿下의御訪獨後 暫時瑞西의 "그린델왈드"에御滯在御靜養中이시엿섯는데 十二日午後二時松平式部長官 中村軍醫少將을거나리시고 大陸으로부터 도버港에御着、吉田大使、富井參事官及先着한 山縣御用掛等의 御出迎을바드시고 妃殿下께서는 卽時倫敦行列車에 御乘車 同四時十五分倫敦빅토리아驛에御着하사 自動車로 "하이드·팍·호텔"에 入御하시엿다 妃殿下께서는 御疲勞하신빗도보이지안코 御機嫌 御麗하시게 拜察된다

◆我軍의海陸連絡所……

國際聯盟協會 日本行動阻止決議

【쥬네브十三日發同盟】南京政府는日支問題의 聯盟提訴에압서그前哨戰으로서 前부터 民間團體인支那聯盟協會에 命하야 쥬네브市에잇는國際聯盟協會本部에日支紛爭에 關한決議案을 提出시키엿는바 聯盟協會本部는 十二日特別理事會를 開催하고 午前 午後의 二回前後約六時間半에亘하야討議한 結果支那提出의 決議案을修正한後 이를採決하엿다

決議案

日本의 今回軍事行動은 一九三一年에 비롯한 支那征略의 繼續이다 聯盟은 財政的其他 方法으로 日本의 行動을阻止하라

今日 特別理事會出席은 二十個國이엿는데 그約半數九名은 棄權하고 殘餘의投票는十對一로 決議案을 通過하엿다

國府、日支紛爭을 聯盟에正式提訴

【쥬네브十二日發同盟】國民政府는 今回支那事變을 마침내 十二日中에 文書로써 正式으로 聯盟에 提訴하기로 決定하엿다 採用條文은 聯盟國과 非聯盟國間의 紛爭에關한 聯盟規約 第十七條이다

山西軍의最大要衝 大同을完全占領 省境의陽原도占領!

【王官人屯十三日發同盟至急報】聚樂堡로부터 大同에向하야 疾風과가티 敵을 追擊中이든 我○軍의 前進騎兵隊는 十三日午前九時五十分 마츰내 山西軍의最要地 大同東門에 進入하엿다 이어서 ○○隊도 東門에殺到하야 一齊射擊을開始하자 大同城內의敵은 弱하게도白旗를들어 降伏하야 玆에我軍은 大同을 完全히 占領하얏다

【察哈爾前線王官人屯十三日發同盟】蔚縣을占領한 我軍은 다시 支那軍을急追하야 十二日午後三時 陽原을占領하고 省境을넘어 山西省廣靈의堅陣에 肉迫하게되엿다

全國總務部長會議

【東京電話同盟】重大時局에處하야內務行政의 强化를 期하는緊急全國總務部長會議 第一日은十三日午前九時부터 內務省第一會議室에서 開會되엿는데 먼저馬場內相으로부터 이重大時局에處할內務行政의 强化充實에 對하야 重要訓示가 잇슨後 指示事項

一、國民精神總動員에關한件
一、地方財政補給金의 趣旨徹底에關한件
一、地方債抑壓에關한件
一、軍事扶助其他軍人의援護에關한件
一、軍事勞務要員充足에關한件

外五件 指示事項二件에 對하야 坂地方局長以下關係官의 說明이잇고 地方側과 여러가지質疑를 거듭한後 橫山資源局企畫部長으로부터 時局에對한 資源總動員計畫에對하야 口演이잇섯고 正午一旦休憩 午後도續行할터이다

敗敵을追擊 一路金家灣에進出

【楊行鎭에서村上同盟特派員十三日發】昨十二日楊行鎭楊家宅을確保한 田上部隊는 十三日早曉부터 潰走하는 敵을 追擊하야一路金家灣方面으로 進出하야 無電臺를 死守하는 敵을攻擊 劉家行鎭에 肉迫하는同時에 劉家口方面에 敗走하는敵을 追擊中이다 石井部隊는 同早朝부터 胡家宅楊宣宅西威宅의 敵에向하야 全線에 亘해追擊하는中이다

八面鋒

◇全州의新興 紀全兩校 廢校 指令을目前에압두고 突然救主가出現。印昌植氏의十萬圓이 돈으로는 크다할것이업스나 이러한 境遇에는 生脈散。脈을끈드러놋은것은 印의 功績이어니와 정말救之育之는 누가할것인가。

◇全州는 三南의大都、全北은 萬石軍만키로 有名한地方。

◇이러한地方에서 私學으로몰만한것은 高敞高普가잇슬뿐。

◇全北人士여 일어나라、諸君의子女를 가르치기 爲함이니 무엇을앗기리는가。

◇天은自助者를 도음는다、自營自計하지안코 누가 그대들의 子女를 가르처줄것인가。

永定河右岸北方에 新陣地를續續構築 石友三軍約四萬이集結

【南各庄十二日發同盟】永定河右岸北方牛里地點으로부터 西南으로 約六里間에는 敵이 一重三重으로 新陣地를構築하고 鐵車한 戰備를 鞏固히하고잇는데 右岸騎兵第十師、中央軍 第二師로서 永定河附近의 兵은 石友三軍으로 判明되엿다 ○○部隊가 對峙한 이敵兵은約四萬으로顯한다 我方의 決死的偵察의結果 永定河右岸의 高粱田에는 續續한 新陣地가 構築되여잇는바 이에對해我方은 戰機가 熟하는것을 기달리고잇다

大同中心으로 一大激戰?

【察哈爾前線王官人屯十三日發同盟】○○部隊는 長城線에兵을前進시킨後 僅二旬으로 東은平綏線下花園으로부터 西는聚樂堡에至하는五十餘里의 戰線을 疾風迅雷的으로進擊하야 各地의支那軍을擊破하야 일직이 世界戰史에보지못한 進軍記錄을 남기엿다 그런데 十二日午後二時에는 다시西進하야 山西北部의要衝大同을一擧로占領하고저 恩河右岸의線으로進出하야 無氣味한沈默을 繼續하고잇는 敵大部隊와相對峙하고잇다 一方支那軍도我軍의進擊에 備하야 數日前부터 平地泉及 大原方面의 大部隊를 大同에 集結하야 第一段 第二段의 防禦陣地를 構築하고잇는바 彼我兩軍의 火蓋를 開하야 大同을 中心으로 一大激戰을 演할것으로 山西全省을 震撼시킬날도 目睫間에 切迫하엿다

바 閘北포켓트一帶에 爆彈이命中되여 이때문에 火災를 이르키여 目下延燒中이다

【上海十二日發同盟】今日正午頃부터 數回에亘하야 行한我航空隊의 閘北포켓트地帶의 爆擊은 共同租界境界線을 襲擊하야 眼下의 敵陣地에 巧妙하게 爆彈을命中케하야 虹口에잇는 邦人으로하여금 快歌를 絶叫케하엿다 再昨日의 滬江大學西北方을 進擊하는 陸戰隊前線으로부터 前方約百米의 敵機關銃陣地를 向하야 胸中이시원한 爆擊을 行하엿는데 이와同時에 海軍航空隊爆擊의 適確함에는 當地外國武官들도 모도 驚嘆하고잇다 現在○○基地로부터 數千米上空에서 地上의蟻穴까지라도 命中시키는 爆擊의名手 橋口部隊長을 爲始하야 다이빙을하야 一二三機編隊한대로 投彈하는 爆擊의 名手만이 가추워잇다

敵機一回나夜襲

【上海十三日發同盟】每夜의行事로 되여잇는 支那飛行機의 虹口上空의夜襲은 七時二十分과十時三十分의二回에亘하야 行하엿는데 我方의防空射擊으로 쫏겨서 擊退되고마럿다

上海市政府占領

【上海十三日發同盟至急報】敵의 退却에 乘하야 我軍은 軍工路方面으로부터 猛進擊을 開始하야 遠東競馬場을 占據한 海軍陸戰隊와 緊密한連絡을 取하야 敵을西方에서 壓迫하야 正午頃까지 市政府의 線에進出、市政府를 確實히 占領하엿다

從軍減稅法 今日公布施行

【東京電話同盟】臨時議會를通過한支那事變에 從軍한軍人及軍屬에對한租稅의減免及徵收猶豫에關한法律은 上奏御裁可를 經하야 十三日公布 卽日施行하엿다

人事·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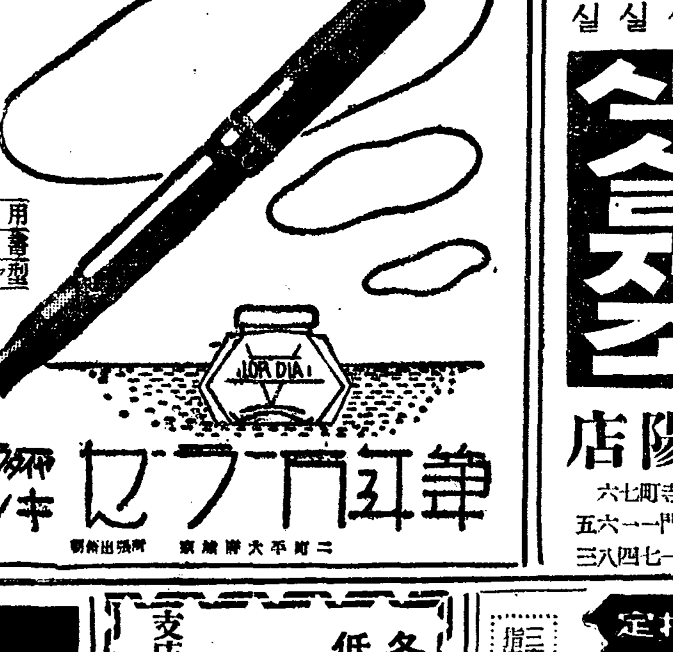
▲鈴川專賣局長 京城及全州地方局管內臺巡視코저 十五日午前八時三十分京城發 十八日午後三時四十分歸任豫定
▲橋本治吉氏(總督府遞信副事務官) 新任人事次來社
▲田崎勇造氏(元山遞信分掌局保險監督課長) 同上
▲須須木貞雄氏(咸興郵便局長) 同上
▲重松武雄氏(群山郵便局長)同上
▲野村隆吉氏(木浦郵便局長)同上
▲岩男省三氏(遞信局監理課長)東京出張中이든바 十五日午後三時四十分車로京城驛着歸任豫定

記念用 印入タオル 實品用
優勝旗 團旗 校旗 會旗 船旗 出陳旗 附屬品一式
大賣出 天祥印
東洋染織捺染部 京城府長沙洞八拾五番地 電話光二三一八 振替京城二〇六四八

有効力으로팔리는
治腫秘傳靈藥 三仙膏 삼선고
윤종(乳腫)·등창(背瘡)·발제(髮際)·뇌후종(腦後腫)·합종·창·연주창(瘰癧)·만성창·신창(濕瘡)·주마담(走馬痰)·관절염·부골저종·치질·답종·화독·창상·라렉·등
定價 五十錢 二十錢 便 三十錢 五十錢 一圓
本舖製造 京城鍾路 共生藥業株式會社 振替京城三〇〇二
全國有名藥房

リリヤン 文化ヤン
재봉실 끈수실 푼수실
석실제조
首陽店 京城寺町七六 電話光化門一一六五 振替京城一七四八三

セーラー万年筆 特約店 楠商店 京城鍾路二丁目二十七番地 電話光化門三九六番
學生用 書面兩用 ダイヤ型
セーラー万年筆 セーラーインキ
京城府大平町二 朝鮮總代理店



約束手形紛失廣告
昭和拾貳年九月拾壹日附金五千圓 支拂期日昭和拾貳年拾壹月九日 支拂場所及宛名朝鮮殖産銀行 振出人李正求及洪承吉連署

말더듬이
重難한訥言도全治함 矯正案內書無料送呈
京城府梨花町二〇四ノ三
訥言專門矯正院

名藥案內
간질 엔秘方"간시론" 업스면약가반환 五원 증서를보냅니다 약가십원、오원 송료십오전
京城鍾路四丁目五九番地 日光製藥社 電光二三一四三番

最新發明 朝鮮衣服동정
모양이제일이요、검지안는이상한동정이 새로발명되엿습니다 무엇보다 實物見本을보아야!
商報는無代進呈、見本請求는五十錢小爲替同封要
代理店募集
大阪 サイワイ商會
京城府鍾路三丁目四五 振替京城二六八六二番 電話光化門二四七五番

官認 東亞無線技術研究所研究生募集
◎募集人員 六〇名 ◎受付期限 九月末日 ◎設備完全 ◎就職準備
◎規則書要三錢切手
京城府惠化町一三五番地

自動車運轉者養成
公認 東亞自動車講習所
◆運轉手試驗ニ合格セントスル者ハ來レ ◆絶對責任敎授 學費最低廉
◆今ガ入學ノ絶好時期 ◆練習車 練習場完備朝鮮第一 ◆就職無料紹介
場所 京城府若草町大通り
經營 元京畿道運轉者試驗官 溝見良
電話本局六七〇四
(學則送呈參觀歡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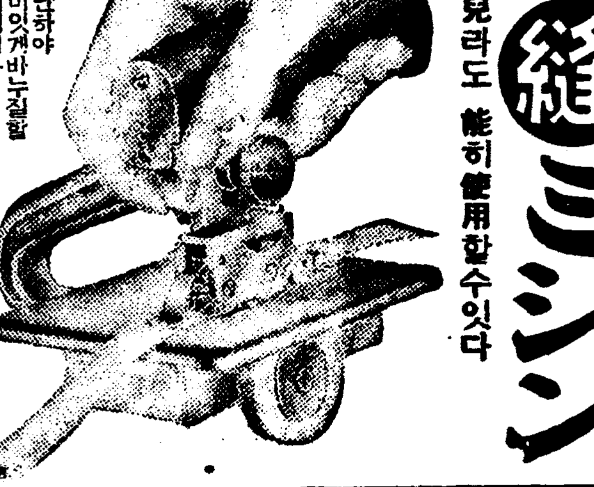
平壤府鍾路通
內科 小兒科 濟衆医院
電話八二二番

各種信托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府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麿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咸興
(營業案內贈呈)

農林省御指定
專賣特許 中島式自動製粉機
三府四十二個縣指定機·補助金付
天下の名 中島式 製粉有良 利益多大
スノウテックス 小麥粉漂白劑
型錄進呈
中島製粉機釜山販賣所 釜山府富平町三丁目 電話(長)一五九四番 振替釜山七〇五二番

【特約店大募集】
製造元 名古屋市西區傳馬町三丁目 東西商事社 電話本局七八番 四五二六番

●朝鮮의裁縫을機械化하야大發明하엿다
△七세의 小兒라도 能히使用할수잇다
裁縫ミシン
아·모·리·서·든·자·리·라도 어린아해나 로인이나 극히간단하야 서툴르지안코 자미잇게바누질할수잇는 朝鮮裁縫미싱이다
使用이 簡易한것은 아이로울 쓰는것과 조금도 다름이업스며 프로밀기만하면 제절로 박어지며 박은자리가 보기조회 무아이나 明紬나 綢紗가튼것도 마음대로完全하게 박울수잇다
大特賣 (裁斷附)(一臺代金)……三圓八十錢



蘇聯機越境偵察 今年드러十五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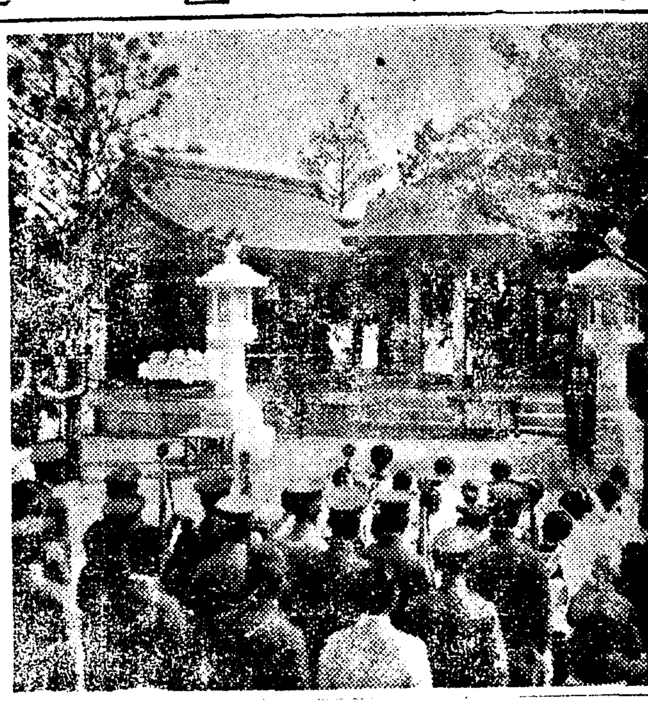
軍事重要地帶로事態重視

九月中에十回越境

【羅南】함북도외사과(外事課)에 드러온정보를종합하면 지난칠월 이래로 국경을넘어 조선측의상공에나타나 불법한정찰을 감행한소련비행기의 월경사건은 지난구일까지에 무려십오회에달하고 정찰한지역은 서수라(西水羅)를 비롯하야 라진 웅기(羅津 雄基)등의 군사상 중요한지대의상공임에 비최여 당국에서는 사태를 극히중대시하고잇다 그동안 불법비행의 월경상황을 표시하면 다음과가다

蘇機越境飛行狀況表(朝鮮內上空과直時對岸上空)

飛來月日時	飛來地點及飛來方向	摘要
一、一月二五日午前十時五分	西水羅上空 雄基方面에서	三〇〇〇米高
二、六月二日午前十時五〇分	古乾原上空 豆滿江方面에서	單葉機 三〇〇〇米高
三、六月二日午前十分五〇分	慶興上空 滿洲國境에서	三〇〇〇米高
四、八月二三日午後二時	蘇滿國境三角山上 琿秋方面에서	軍用機九機編隊
五、八月三一日午後十時五〇分	羅津、雄基上空 西水羅方面에서	機種不明
六、九月四日午前二時五〇分	羅津上空 不明	不明
七、九月五日午前〇時五分	雄基軍馬補充部上空 新水洞方面에서	羅津防空監視所所見
八、九月五日午前三時	羅津大草島上空 不明	不明
九、九月五日午前三時二〇分	羅津大草島東方上空 不明	不明
一〇、九月五日午前三時四五分	羅津大草島上空 不明	偵察後南方飛去
一一、九月五日午前九時五〇分	土里對岸江口上空	豆滿江口로飛去
一二、九月五日午後四時	蘇滿國境一帶 自北方	豆滿江口로飛去
一三、九月七日午前八時	六道泡子國境 不明	琿秋方面에飛去
一四、九月八日午後二時	西水羅卵島上空 北方에서	軍用機二機가偵察後歸北
一五、九月九日午前十時	西水羅上空 北方에서	軍用機一機가偵察



武運長久祈願 乃木神社例祭

어진좌(御鎭座)삼주년을 마저 내목신사례대제(乃木神社例大祭)는 작십이일부터 시작하야 사흘동안 거행하는중인바 특히 국위선양과 무운장구를기원하는 의미에서 각종행사로성대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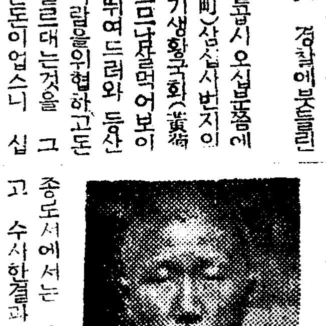
映畵의惡感化로 短刀强盜가된少年

樂園町某妓家를侵入하엿다가失敗

鍾路署員에게就縛

활동사진에 의감화를바든소년이 동양의『달마치』가될라다가무서운강도질을하고 경찰에붓들린일이잇다

십일일오후 일곱시오십분쯤에 시내락원정(樂園町)삼십사번지이십호 조선권번기생황국화(黃菊花)(二〇)의집에 스므나살먹어보이는 젊은사나이가뛰여드러와 등산용단도로 집안사람들을위협하고돈을내노라고 얼르대는것을 그집사람이 지금은돈이업스니 십삼일오후가드면 돈을 주겟다고하지 이자는 다시오겟다고 다저두고다라낫는데 이고발을바든 종로서에서는 즉시 비상선을느리고 수사한결과 이자는시내안국정(安國町)오백십칠번지 김억석(金億石)의 맛아들김인직(金寅植)(一九)으로 판명되어 십이일오후여섯시 신당정김석빈(金錫彬)방에 잡복하고잇는것을 무난히붓들엇다고한다



이자는 작년삼월 시내관수정(觀水町)모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내 수표정모자전거방 점원노릇을하다가 약사오개월전에 그곳을나와 다시황금정 칠정목모건축회사에 취직을하엿다가 그직이되여 도라다니든중 원래이자는 활동사진을 밥보다더조화하야 언제라도 활국으로유명한 동양의『달마치』가되여 보겟다하고는 노픈곳에서 뛰여내리기 담뛰여넘기 갈쓰기가튼것을 련습하든중 이날은 자금을구하겟다고 장사정(長沙町)이십륙번지그동무 김득수(金得洙)로부터 등산용단도를 빌려가지고 이가티 대담한일을 저즈른것이라고한다 (사진은 김인직)

精神異常者墜落慘死

부내삼청정(三淸町)이십륙번지 한천석(韓千石)이란 로인은 십이일오전두시경 팔판정(八判町)칠십번지 리종문(李鍾文)의집 압다리장원교에서 떠러저 개천바닥에머리를부듸처 뇌일혈을 이르켜죽엇다 이로인은

救護中의避難民 六千五百餘名

治安回復後는定業에安着토록

北支朝鮮人救護策

북평(北平)천진(天津)을 중심으로 북지에는 조선인이 약이만인이 나잇서 사변이폭발하자일시혼란상태에빠저잇슬때에는 일층곤난상태에 잇섯든모양이고그후에는점차로 치안상태가 원만히 회복되여가면서 일부에는 녯직업에회복되고잇는것도 잇는모양이나북평、천진이외의지방에 허러저잇는사람들은 만히녯직업에회복치못하고 당국의구호를 밧고잇는것이만타 그수효는 북평에 일천륙백오십명 천진에 일천수백명 기타 산해관(山海關)당산(唐山)통주(通州)등에 각기오륙백명내지 천여명식 현재전가오개소에 도합륙천오백명의 피난민이 수요되여 벌서부터 하로한사람압 삼십오전식의 비용으로 총독부에서 구호중이다 일전에 선우전(鮮于全)씨등다섯명을 총독부촉탁으로하여 북지에파견한것은 전기오개소 수용소의피난민의보호지도를위하야 파견된것인데그들중에는 대부분농업、요리업등 기다양한 직업을갓가지고 시절을따라 버리를하든사람으로 사변이후 아직치안이원만히 회복지못하여 귀주지에 돌아갈수업는것으로 또돌아간대도 생활의 근거를 차즐수업시된사람들이어서 부득이당국에서 될수잇는데까지 구호를하게된것이다 이후각지의 치안이회복되는대로 적당한직업을엇도록 주선도해주겟지만은 주목표는 명춘개실될 기동정구(冀東政區)내의 농장에 대부분수용토록 계획중이다 그러고 방금시찰중의구조비는녀섯번의회에서 통과되도 만사천원으로지출중이다

香ベナミン 一吹必殺

避難民으로假裝한 軍官校出身을逮捕

市內東一旅館에潛伏中을鍾路署員이

各關門에서潛入者를監視

전난(戰亂)의 중심지 상해(上海)를 비롯하야 지나각지에산재한 재주동포가 속속고국으로피난하야오는틈에 끼여서 상해、남경(南京) 광동(廣東)등지에서 모종의 비밀운동을하고잇는 주의인물들이 조선내로 잠입하고잇다고한다

지난이십삼일 일지연락선 장기환(長崎丸)이 장기(長崎)에닷자 수상한청년하나를 수상서원이발견하고 취조한결과 그는남경중산대학(南京中山大學)생 서상호(徐相虎)(二一)로 그곳김구일파(金九一派)의 조선민족〇〇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사변으로 신변의위험을 피하야 피난민속에끼여 조선안으로잠입하려든것이 판명되엿스며

수일전 종로서원이 부내관철정(貫鐵町)동일려관(東一旅館)에 묵고잇든 피난청년하나를 검거취조한결과 그는지나모군관학교출신의정희동(鄭熙童)으로 상해에서 모종활동을하다가 어면사명을띄고 지난이십오일경 한것이라고한다

이와가티 상해를중심으로하야 지나각지에서 모종운동을 하고잇는주의인물들이 이번사변의피난민들에끼여조선안으로 잠입하는 확증을어든 경무당국에서는 전조선각경찰서에 밀령을띄워경계를 엄중히하고잇스며 더욱인천 부산등가항구의 입항자를 엄밀히단속하고잇다

時局利用하는 惡德行商取締

各家庭에서도注意

요사이 경성시내중요한 거리에는 방호단원을 비롯하야 중조등학교생도와 아동들이국방헌금을 하고저 방공마크 또는꽃등을팔고잇슴을 리용하야 그들을타서 시국을 표방하고 각가정을차저다니며 또는 거리에서 물품을 강매하려는 악덕행상이 잇다는 말을 전해들은 경기도경찰부에서는 십일일 부내각경찰서에통첩하야 그가튼 악덕행상유무를 엄중히 조사취체하도록명령하엿다한다

不正店員畢竟警察에

원적을전남령광읍(全南靈光邑)에두고부내한강통(漢江通)삼번지의십삼호주우약국(住友藥局)에서 금년이월부터점원으로지나는오정준(吳正俊)은 지난 오월이십일까지에 원정(元町)방면에서 집금한돈 칠십사원이십전을 유곽기타 음식점등으로 다니며소비한것이 발견되엿스나 주인은 여러가지로 말을하야 월부로횡령한 돈을 십원식 반제하기로하야 여전히 점원으로 지나게하엿는데 그는 여전히 미생정(彌生町)유곽에잇는 모창기에게 돈을쓰게되여 횡령금은 여전히 체재되엿고 회계하지못할것을알게된 주인은 룡산서에 알리게되엿다 창기에게 마음준 허영의점원은 단죄가나리는날까지금일부터 류치장신세를 지게되엿다

基督教青年會 軍事講演開催

경성군사후원련맹의 가맹단체인 경성기독청년회에서는 십사일 오후일곱시에 부내장곡천정(長谷川町)그회관에서 『독와사방호』에관한 강연과 실연을하기로되엿는데 강사는 경성국방화학협회(國防化學協會)부회장 식촌웅길(植村雄吉)씨라한다

東海岸에暴風禍

漁船과漁網等流失被害莫大

【大邱支局電話】 십일일 새벽부터 동해안에는 무서운폭풍이일어나 연안에는 피해가 상당히 만헛든모양인데 십이일밤 경북경찰부에 도착한피해상황보고에 의하면 경북영덕군(盈德郡)내의 피해만도 어선전궤가 세척에사백오십원 반괴칠척에 사백륙십원 어망(漁網)류실된것이 일천오백여원등 합계이천륙백여원이고 또십일일 오전십시경 영일군 형산면남지동(迎日郡兄山面南池洞)에서 약일해리되는 바다에서는 팔십칠톤의 발동기선 일선환(日鮮丸)이중유(重油)를실고 항행중에 침몰되엿다 아직 피해상황은 조사중인데 그중에는 인명의피해도 잇슬모양으로 경찰에서는 계속하야 연안일대의 피해상황을 조사중이다

重油船一隻도沈沒

=別報=장기시(長崎市)호정(戶井)교본작태랑(橋本作太郎)씨 소유 발동기선 일선환(日鮮丸)(팔십칠톤)은 중유구십오돈을실고 원산으로부터 부산을향하야 항행하든중에 십일일오전열시쯤에 경북영일군형산면(迎日郡兄山面)압바다에서 폭풍우를맛나침몰되엿는바 승조원팔명이 빠저죽고 중유와선체합하야 손해이만이천오백원이라고한다

避難歸還者는 四千三百餘名

定業이업서서걱정

북지사변이후 북지에서 피난하여나온 조선인은 약사천삼백여명이다 그중 약팔백명은 봉천(奉天)으로 갓고 이천삼백여명은 평남북도에 돌아왓다 이들은 대부분이 국경을 따라다니면서 시절을따라서、버리를하든사람인데 사변후 버리가아주 끈허저서 고향으로 돌아온것들이다 그러나그들은 고향에 돌아온대야 압록강(鴨綠江)안일대를 중심한 밀수업이 전갓치안코 또 종래 그런 직업에 맛을드린관계로 그리 고향에 부러잇슬것갓지도안어 결국은 다시 북평방면으로 대부분흘러가게될것이 아닌가하고 추측되고잇다 당국에서는 될수잇는대로 이들을정업에돌아가도록 주선중이다 또 북지방면에서 종전과가튼 부정품의취급가튼것은 어렵게될모양이다

照風丸監視下 無事漁獲作業

연해주(沿海州)압바다에서 소련관헌들의 어선나포사건에 관하야는 중대한 결의를가지고총독부원양어업감시선조풍환(照風丸)이출동한이래 소련측에서는 별반행동이업서 조풍환감시아래각어선은 어업에종사하고잇는데십이일조풍환으로부터 다음과가튼 전보가드러왓다

서수라압바다십마일 동남동에서 건착망어업어선 오십세척이모두들안전한 작업을하고 잇다 모든풍환과함께 모양이요 구일부터 오늘까지 아무사고도발생치안헛다 조풍환은 십이일청진으로귀환하고 함북수산시험선 백양환이 교대할모양이다

文明琦氏講演會

경성군사후원련맹에서는 북지전선의장병을 위문하고 도라온 경북도회의원 문명기(文明琦)씨를 초빙하야 오는십오일 오후일곱시반에 종로중앙기독교청년회강당에서 시국강연회를 개최할터이라한다

生活難自殺

고양군은평면 홍제외리(弘濟外里) 리종오(李鍾五)는 십이일오후아홉시 자기집들보에 목을매고 죽엇는데 그는상사일전 다리를다치고 당분간 로동을못하게되자 생활난을 비관하고자살한것이라고한다

新興、紀 全兩校의 校名引繼를要求

協議後十四日에回答을言明

更生途上의兩學校

【全州】지난칠일 폐교를 선언한 전주신흥(新興)、기전(紀全)량교는 그후로 총독부당국으로부터 폐교인가만을 고대하고 잇슬뿐이든중 지난십일전주유지 인창환(印昌煥)씨가 십만의거액을 희사하게된 그후로 전기량교는 갈뮤로사나마지는이 갱생의 서광이 떠올랏다 그리하야 십이일은 동교직원과부내유지가 일석에모아 량교협의한결과 위선동교의 갱생책으로는 먼저 교명(校名)을 인계하도록 학교장에게 교섭하자는것이 일치가되자 즉시 배은희(裵恩希) 박준영(朴準英)량씨 교장을방문하고 현재학교의 폐교신청은 정식으로 하엿다할지라도 아직 폐교인가가 나오지를 안햇스니 폐교인가가 나오기전에 우리에게 학교명(學校名)을 옴겨달라는 희망이잇섯다 학교장인 인돈(印敦)씨는 말하되 오늘이지리에서는 명언키 어려우니 밋[illegible]회교육부위원 여섯사람의동의가잇서야 확답을 하겟스니 오는십사일오후에 회주에서 전기위원여섯사람이 모혀 협의한결과를오는십사일 오전중으로 알려주겟다는 대답이 잇슨후 교섭위원은 그대로 도라왓다하며이상의 문제가 호전케된다면 도당국으로도 충분한 고려를거듭하야 동교장래에대한 선처(善處)모양이라는데 그러타고보면 미즈익에 잇서서는 교명까지도인계해줄는지 안해줄는지기 동교금후 복흥문제의 초점이되여잇다고한다 그리고 각방면으로동하야 어느정도까지의 재원도판출될 희망이 보임으로 입학순조로만 나간다면 동교는틀림업시 갱생되리라고한다

本町署留置場에 合百軍新入舊出

第三次七十三名檢擧

십삼일 오전열시반쯤 본정서정사복경관대가 또다시 명치정(明治町)취인소일대를 포위하고 제삼차 합백군(合百軍)토벌을하얏다 이날체포된것은 전부일흔세명으로 그중여자가한명이석겨잇다 그리고 이날은바로 얼마전 붓잡아온 제이차합백군이 구류기한이 끗나서 석방되는날임으로 이를마지하려온 그들가족때문에 서압흔 대혼잡을이루엇섯다

金泉秘事事件 十七日公判開廷

【大邱】경북김천(金泉)을 중심으로 조직되엿든 비밀결사사건인 소위 김천사건(金泉事件)은 소화십년이월에 최초검거를한이후 소화십년십이월에 리병일(李秉一)외 삼십명이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으로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송국되여 그후예심이 종결되고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공판에회부되엿는바 검거이래 이번칠개월만인 오는구월이십칠일에 제일회공판이 열리기로되엿다고한다 공판에회부된 피고삼십일명중 삼명이 병으로 보석되고(그중일명은사망) 출정할피고는 이십팔명이라고한다

松竹キネマ
十四日夕刻
旅順港 事變ニユース 有料試寫會
第一回 六時三〇分 第二回 八時三〇分
會費 五〇錢均一
十五日より上映
明治座

咸興市內에出沒튼 大窃盜團捕盡

【咸興】함흥경찰서 사법계에서는 지난팔일부터 십일까지 련사흘동안 크게긴장하야 함흥부내를 동치서주하야 일당십사명의 대절도단을 일망타진하얏다 그들은 금번시월쯤부터 절도단을 모아가지고 삼명、혹은사명식 떼를지여 부내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전후륙십여회에 빼처서 소매치기 혹은빈집털이를 주기를하얏다 판명되피해만도 근천여원어치나되여 계속취조중이다 그들의 수괴이름은 다음과갓다

沙浦町 金延瑞
同所 盧相鍾

스포ー츠欄

吉岡百米一着 十秒二世界記錄?

日米國際對抗陸上競技大會第一日은 十一日午後二時부터 阪神甲子園運動場에서 行한바 이날百米레ー스에 吉岡選手는 一〇秒二의世界新記錄을 作成하야 驚嘆하엿다

【千五百米】1 魏스카 四分二二秒 2 록그나ー 四分二四秒八 3 中村 四分二六秒 4 田中 四分三二秒八

【百米】1 吉岡 一〇秒二(世界新記錄、追風으로未公認) 2 를미쓰ー 一〇秒三 3 谷口 一〇秒四 4 와이야하우사ー

【走幅跳】1 킹 七米四二 2 福田 七米一五 3 小掠 七米一二 4 무아 六米七七

天氣豫報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 北東風 개엿다하며 小雨가잇고 明日은 잠시흐렷다가 개일模樣이다

昨日最高 二六度四
同 最低 二二度一
今朝最低 一五度八
今日正午 二〇度〇

喘息·神經痛과 高血壓中風 血液淨化로治療된다
淨化素
今津化學研究所 大阪市阪急線三國驛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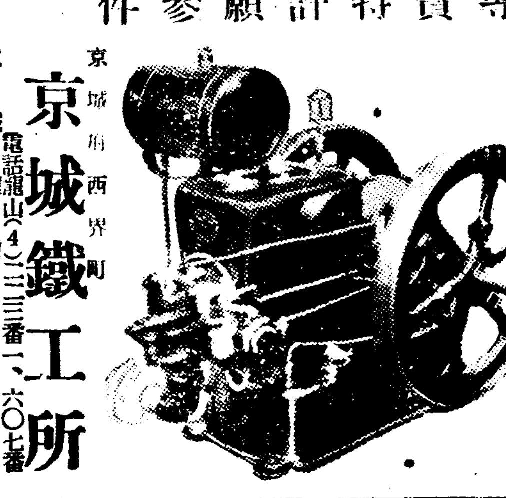
코물나고 막힌대
鼻藥專門 確報堂藥品部
鼻病解說

全鮮唯一 公認 鍼灸講習所開講
平壤鍼灸醫學 講習所生徒募集
平壤鍼灸醫學講習所

國民中學講義錄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中學全學期 十二卷十二冊合本을 단一圓九十錢에投賣합
緊急處分으로 內容見本은 업다。
發賣元 國民書院日報係

內科チストマ토질十二指腸虫채독科專門
京城金弘琯內科醫院
總督府前 電話光三一三 振替京城五七貳貳

少年九月號發賣中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



世界ニ誇ル獨創的一大發明
安價ニシテ燃料經濟
ニノミヤ式低壓重油機關
專賣特許願參件
京城府西界町 京城鐵工所 電話龍山(4)二三三番、一六〇七番
京城驛前 京城鐵工所營業部 電話本局(2)九四一番

アモンパパヤ
아모러튼 잘드는다
파파인酵素와알몬드의相乘力으로만든 專賣特許高級바니싱구레ー무!
여드름 죽은깨 벗겨름
藥用アモンパパヤ洗粉
東京·神田·松住町 株式會社 杉田商店
見本進呈…三錢切手를보내주십시요

補缺募集
京城中等公民學校(晝夜)
出願期限 九月十五日
太平通 大漢門橫入

イカリソース
日本一의産額
日本一의信用
日本一의品質

世界의자랑

補藥은 漢藥이第一

▲天下의補藥中 百補丸 갓치 몸에利한藥이 다시업습니다

▲陽氣·精神·氣血 胃腸等이 모다 조와지고 食事가 倍加됨니다

▲病弱人은 疾病治療劑로

▲氣血虛弱人은 補血强壯劑로

▲陽氣不足人은 精力補給劑로

▲中年人은 老衰防止、更少年劑로

▲藥効信用 天下第一!

●高貴호루몬强壯劑

一、近來盛히 떠드는 호루몬劑도 漢方에서는 벌서 一千餘年前부터 使用해오는것임니다 百補丸에 含有된 特性호루몬은實로 高貴玄妙한性質이 잇슴니다

一、百補丸은 實로 累試累驗의 名藥인故로 絶對 自信을 가지고 藥効를 天下에 推奬함니다

三、元氣不足、陽氣不足、胃腸衰弱、消化不良、神經衰弱、不眠症、貧血症、肺弱、疲勞、盜汗、營養障碍等에는 唯一한 多元性治療强壯劑임니다

• 病과 虛弱으로 걱정말고 只今곳 百補丸을 服用하시요

虛弱이過度하면 百藥이無効한法

暴暑에 시달닌몸을 곳 百補丸으로 補하시요

不治의難病도、早老와短命도、조그마한虛弱으로부터 始作됨니다

一、사람이 第一 늙고 弱해지는때는 一年中 여름철입니다 더위로因하야 元陽이衰退하고 胃腸이弱해지고 元氣와基血이俱虛된몸을 그대로두면 當場에는 別일이업는것 가트나 冬節이되면 치위에對한 身體抵抗力이 不足하고 弱해저서 感氣 傷寒 몸살等에 걸니기쉽고 이 虛弱한틈을타서 못된 病魔들이 肺臟 心臟等 五臟六腑에侵犯하야 各種重病을 이르킴으로 決局 虛弱이 過度한사람은 不治의難病이되고맙니다 早老와短命도 조고마한 虛弱症勢로 始作됨니다 그럼으로

二、服藥의最好期인 只今、百補丸으로 貴下의몸을 튼튼히 補하시와 病魔의 敗北者가되지말고 萬人을壓倒하는 健康者가되시요、百補丸은 身體各部의 抵抗力을强化하고 모든 虛弱과 老衰症을防止하고 基血과 元陽을增進식히는 作用이神妙卓越함으로 철마다 百補丸一劑식만 服用하시면참말로 無病健康씩씩한 一生을지낼수잇습니다

特許第二八二二八號

神人道師 葛玄眞人 의秘方藥

百補丸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腦强筋强骨健力一生無病健康長壽劑

非常時代는健康이第一必要

最大의名藥이기때문에
最大의賞讚을밧는다

漢方醫藥界의 最高權威시요 李王職大官各位의健康을 擔任하고게신 現李王職典醫 洪在崲先生께서는 누구보다도 百補丸의效力과 眞價를 잘아심으로 同胞에게간히 推奬하시며 이와가치古今東西最良劑라고 칭찬하십니다

葛玄眞人百補丸
古今東西最良劑
李王職典醫 洪在崲

婦人百補丸

調經胞胎·補血强壯

代々孫孫·鉄血子女

生男生女天下待望의 世界的婦人名藥

안해의 無病健康을 爲하야 家庭의 團欒을爲하야 슬하의 子女를 엇기爲하야 이약을貴下婦人께 一劑식사드리시요

婦人百補丸은 女子의經度不調와 赤白帶下症、冷病、不姙症、頭痛、腰痛、眩氣、便秘、神經衰弱、히스테리、子宮惡臭、下腹痛、氣血俱虛、手足厥冷、顔色蒼白、消化不良、不眠症等 모든婦人의 子宮病을 곳치고補氣補血、姙宮胞胎케하는 秘藥입니다、無子多病한婦人과 夫婦和合을모르는婦人은 곳 쓰시요

淋疾잇는男便

斷産한지十年된 老婦人이生男

◆婦人百補丸은 斷産한지 十年된 四十七歲의 老婦人이쓰고 胞胎하야 玉童子를 解産한等의 實例가만은 神秘藥材입니다

◆姙娠中의 婦人이쓰면 健康한子女를 낫케되고 産後젓이 잘안나는 婦人이쓰면 젓이흔해집니다

◆特히 淋疾잇는 男便을 가진婦人이 이藥을쓰면 淋疾治療도되고 豫防도됨으로 第一安全합니다

藥價 一劑特價七圓 (三劑以上注文에는一劑加添)

藥價 一劑特價拾圓 重用試拾圓

三劑以上 共同注文하시면 周旋人께 一劑無代進呈

無料進呈

重要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朝鮮總督府商工奬勵館
三、全朝鮮十三道廳商工奬勵館及商品陳列所
四、全朝鮮和信連鎖店
五、三越·藥品部

체증을 根治하려면 消化劑를 쓰지말고

健脾强胃劑를쓰시요

●百補丸은 健脾 健胃 作用이 强大함으로 年久체증이 떠러지고 氣血이 旺盛하고 陽氣가 大旺되고 筋骨이 튼튼하여짐으로 一擧兩得이됨니다

●체증에 對하야 一時的 病者의 好感을 수기爲하야 消化劑를 大大的으로 宣傳販賣하는곳도 數多하나 이等消化劑로 체증이 根治되엿다는말은 누구든지 듯지못하엿슬것입니다

●百補丸은 健脾 消滯의 二重作用을하오니 체증 消化不良을 根本的으로 곳치려면 亦是 百補丸을 쓰는것이 第一完全합니다

百補丸의効力은 이러케굉장합니다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 全身이衰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 下部가 恒常無冷하고 肢節腰痛으로 고생하는분
一、口味업고 消化不良과 체증 속병등으로 고생하는분
一、肺가不足하고 元氣와 活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四肢가勞困한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무엽고 精神이흐리고 記憶力이不足한분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服用하여 씩씩한靑春이되시요
一、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精力이됨니다
一、消化不良 체중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젓는지 알지도못하게 업서집니다
一、눈이밝가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짐니다
一、全身五장 六부를다잘補하야 참말完全히 陰陽雙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陽氣가大旺됨니다
一、過欲過色人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速効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絶倫하야 一生을無病健康한몸으로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嗽와 오랜淋疾도 消滅됨니다

京城堅志町五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家庭

교훈이 그릇되어 의외의 비극으로
어려운건 자녀의 교육
박천에서 일어난 사실을 보라!

자녀를 나허노흔이상 가르처야 할것은 사실이지오만 그 가르치는일이 그러케 쉬운것도 아닙니다 최근 박천군내(博川郡內)에서 일어난 사실로만 보더라도 부모되신분이 얼마나 주의를해야 될것이라는것을 알게 됏것입니다 박천군내에서 일어난 사실이란 어떤것이냐 하면 이러합니다 어머니 한분이 열여섯살이나된 큰 딸을 맡안는다고 엄포시키기 위해서 부러 양재스물을 먹은체 죽은시늉을 하얏는데 그딸은 정말로알고 겁결에 진짜양재스물을 드러 마시엇다는 것입니다 목숨은 다행히 건지엇다고 하나 아모래도 속이야결단나지 안햇슬리가 잇겟습니까? 앞길이 창창한 묘령의 색시어니 그 얼마나 애처로운 노릇입니까?

×

어머니가 무엇을 위르시는것을 어째서 안될것은지 그것은 전연 모릅니다 만은 그러라고 죽는 시늉을해서 가르친다는것은 천만번 잘못입니다. 사리를 타서 알아 듯도록 일러 조코 준절히 꾸지저서 깨닷도록 해서 조치 그런 거짓행동으로 엄포를 하려는 것은 될번도 심치 안한 일입니다. 설사 그당장은효과가 난다고 합시다. 조금만 시일이 지낸때는 도로래미타불로 아모영향도 업서지고 말것이아니겟습니까? 정직한것을 가르처야 할 어머니로서 거짓행동을 가르치시는 셈입니다. 모든데 모범이될어머니로서 모범되지못할 일을 몸소 행하시는격입니다.

효과가 절대로 잇겟습니까? 그무슨 다른 방법이 잇습니까?

×

모르기는 모르되 어머니가 죽는 시늉까지 하야서 엄포를 하실때는 잘못도될 시초그만 잘못이 아닐것입니다. 한 집안의 수치스거리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 따님의 장래에 커다란 관계가 잇는 일일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열여섯이나된나히에 아조 철부지가 아닐테니 따님에게는 따님대로 무슨사정이 잇지안햇겟습니까? 혹시나 어머니가 완고하서서 새로운생각을 가지는 따님을 섯투르게 보시고 자기대로 나물하는데 종시 듯지안는까닭이나 아니엇습니까? 그러라면 어머니 되신분으로서도 좀더 자녀의 생각을 량해해 주서야합니다. 벌서 시대가를 리는것을 억지로 자기처럼 되라고 일러자 소용이업는 일입니다.

×

그보담도 교육을 밧지못하신 어머니중에는 별별어른이 다 만호시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시고 쓸대업는 일에도꾸중을 하시어서 자녀로하야금 도라어 반심을 품게하는수가 비밀비재올시다. 그그러사이에는 동으로 가라면 서로 내뺍니다. 서로 내빼는 자녀가 반듯이 올흘까닭은 업스나 부모로도 다시한번 생각을고치서야 할일입니다. 그야 박천사실이꼭 그러다는것은 아닙니다 이기회에 여러분을그러치안토록되기를권고드릴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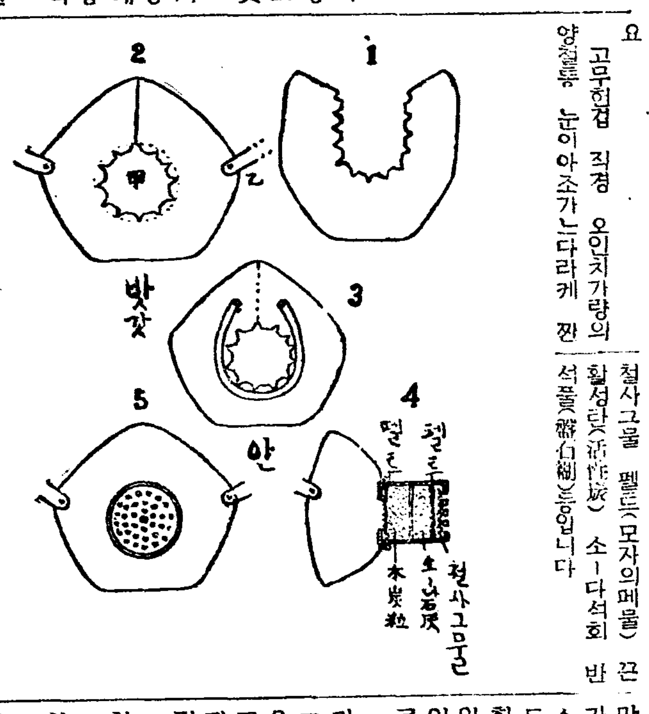
집에서도만들수잇는 방독마스크
비싸게주고살것업다

한번유사지시에는 무엇이 엇더케될지모르는 요지음 전쟁시대에 제일무서운것 독와사(毒瓦斯)입니다

이것을 방지하는데는 방독마스크(防毒)란것이 잇는데 전장에나간 병사들은 모다이것을미리가지고 단이므로 상관업지만 소위비전투원(非戰鬪員)이라할반백성은 이러한 기구가 업스니 피난하기에 여간곤난을 당하는것이안입니다 비행기가 날러와서 독와사 폭탄을 던지면 모다 이독와사 중독이되여서 죽어버리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방지하기위하야 독와사방독마스크를 제각각 만드러본것도 조흡니다.

이방독마스크는 비상시에잇서 각자의방호만이 아니라 공업상에도 대단히 필요한것인데 그종류는 여러가지잇스나 그중에서도 제일간단한것이 『입막는식』입니다.

그것을 만들기위하야는 위선재료로서 다음것을 준비하십시요



고무헝겁 직경 오인치가량의 양철통 눈이아조가는다라케 짠철사그물 펠트(모자의페물) 끈 활성탄(活性炭) 소-다석회 반석풀(礬石糊)등입니다

만드는방법은 위선 고무헝겁을 가지고 겨울에 감기예방하는마스크식으로 오각형(五角形)을만드는것입니다. 그리하야 한번도 화지가튼것으로 제일도(第一圖)와가티 뽄을만드러서 고무헝겁위에노코 연필로 금을거려가위로 버입니다.

그리하야 양족을 이어서 입과코에 갓다대여보고 알낫거던 그것을펴서 제이도와가치 양족을 합하야 고무풀로 부칩니다 코와입사이에 빈틈이잇서서는안되므로 이것을 업세기위하야는 직경일인치 가량의고무관(管)을 그냥대로조흐나 그속에용수철로된 철사를 너흐면 더욱 조흡니다. 그래서 이것을제삼도의것과 가치풀로부치시요.

그다음에는 흡수관(吸收罐)입니다 이것은 직경오인치가량의 양철통밋바다에 직경이미리(二粍)가량의 구녕을 송곳이나 못으로 만이 뚤어둡니다. 제이도의(甲)잇는데에 안으로 너허서 풀칠을하고 그위를 든든케 묵거둡니다. 다음 제이도의 량쪽끗에 마스크를 매는끈을 달기로하는것입니다 요번에는 흡수관속에 넛는 흡수제(吸收劑)의 약품인데 그것을넛는방법은 제사도의 단면도(斷面圖)와가티 처음철사 그물을둥그게 끈허너코 그위에펠트를두르는데 이것은 기루기코에드러와서 개책이가 나지안케하기위하야 두르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다석회를너코 또활성탄(活性炭)을 부서서넛는데 이것은보통숫드로 될수잇습니다

그다음에 펠트를노코 마즈막으로 크다란 구녕을 뚜른두경을터퍼놀이면 됩니다.

출세에방해되는 쌀쌀한얼골
유순케보이는화장법

얼골이란 그사람의 간판이라얼골이 조코납분데 따라서 그사람의 출세에대단히 관계가만습니다 녯날부터 전해오는골상학(骨相學)은 보통사람으로는 알수도업거니와 그것을 미돌만한근거도 차출수업스나 대체로그사람의 첫인상이 납부고조흔것은 그사람의얼골이 엡부고 못생긴데 따라서 결정되는것이아니요 이것은 차라리 어듸인지모르게 너그럽고 웃지안허도 웃는낮 얼골자체가 천생그러케생긴사람도 잇고 얼골은 잘생기고 엡분데 어듸인지 모르게차따가워보이면서 친하랴고드면 찬바람이나서 무섭게생각이드는 사람이잇습니다 실상은 마음새까지가 그리차운성격도안인데 얼골이 너무 차웁게생겨서 남에게 늘친해지지못하고 경원(敬遠)을당하는니가잇습니다. 이런사람은 남들이야 무엇이라고하던 자기자신은 늘외롭고 쓸쓸한 (鬱悶)을 가지고 잇습니다.

얼골이 차게생긴데는 여러가지가잇습니다. 얼골전형이 너무 지나치게정돈되여서 차게보이는니도잇고 눈이크고 눈섭이너무 짓터서 차게보이는 수도잇스며 코대가 너무놉고 칼날처름서서 이러케보이는수도 잇고 입이너무담으러저서 그러케 보이는니도잇습니다.

그밧게도 전채의 륜곽이라던지 표정관계로오는것도 만습니다.

너무차게뵈이는말을 듯는사람은 때때로 천연적 스럽게나 의외에도 차구나하는 생각이들것입니다. 그러한 자기자신의인상에서 찰율게보이는 원인을캐여내보십시요 너무눈을 무섭게 뜨지나 안습니까 그리고 입을 모지게 담으지나 안헛습니까 그것이 선천적으로 된것이라면그것을 교묘하게 감추어버리도록 연구하여서 화장을하도록 하십시요 눈이차워보이거든 눈어구에 연지를엷게칠코 코대가 너무차워보이거든 코대를 낫게보이도록 화장을 하되 팡대뼈가 너무노픈사람은 코대노픈사람과가티 연한김각을 주는 여튼분을발르는것이 조흡니다.

그다음에는 후천적인것이원인일때-(입담으는것은 니를무는데따라서 결정이되는것이므로 평소에조곰식 니를느추어서 무도록힘쓰십시요 그러면 얼마가지안허서 밧듯시 당신의 표정이 유순해질것입니다.

입술이엷고 빗갈이여튼 사람으로-스게통의 연한루-지를칠하고 따-크(어두운)빗갈은 입술을더욱 엿드게보일것이니 쓰지안흔것이 조흡니다 륜곽에원인 잇거던 눈섭 가튼것을 너무 정돈하지 말고 조곰흡니 하게 해두는것이 조흡니다.

눈에원인이잇스면 입과얼골은 웃는표정이라도 눈으로웃지안흐수 가만호니 눈으로웃는 공부를을 하시는것이조흡니다.

(해)(ㅅ)(밤)

밤(栗)빗갈이 지튼세비아빗드로 번해드러가면 밤맛도조커니와 가을철이기떠가는것을 알수잇습니다 밤맛을정말로 알려면 밤송이채밤으로 사다먹기보담 나무그늘밑으로 가시는것이제일입니다 밤나무미테가서 밤을먹는대는 구어서먹는것이 조흡니다. 미리때일나무를 준비하야가지고 밤송이채로따다가 나무에붓을부치고 그위에 밤송이를 언제두십시요 나중에 밤송이가 까맛케타다 불을지우고 한참두터두고 눌다가 밤송이를 까보십시요 그러면 밤알이 모두익어서 아조 맛이조흡니다 이러케먹으면 밤이소화가잘됩니다

×

대체로 밤이라고말은 소화가 잘안되고 영양분이 적다고들하나 알아먹으면 그러치도 안습니다.

소화가 안되는것은 실상 생밤을그냥 먹는까닭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속겁질을 입들리벗기지안코 먹으면 소화하기어렵습니다 보다도 삶어먹으면 맛도조코 소화도잘되며 영양분도 만습니다. 해스빕시세는 남대문시장에서 한말에 이원석입니다

잔돈을앗기자!

전쟁이 이러나고 전시경제체제를세워 일반국민에게 소비통제를 하랴하는이때 프로전쟁이 길게끈다면, 우리네생활에큰위협이닥처올것은 뻔한일입니다 이러한비상시에는될수잇는대로 생활비를 절약하고 오전쓸때 삼전으로 일원쓸때 오십전으로 큰마음 먹고 줄여쓰지안흐면 안됩니다 이러한 비상시를 사라나갈 마음의준비를 가지는동시에 나아가서는 평소에절약하야 남는 일전이전의잔돈을 차근차근모아두기로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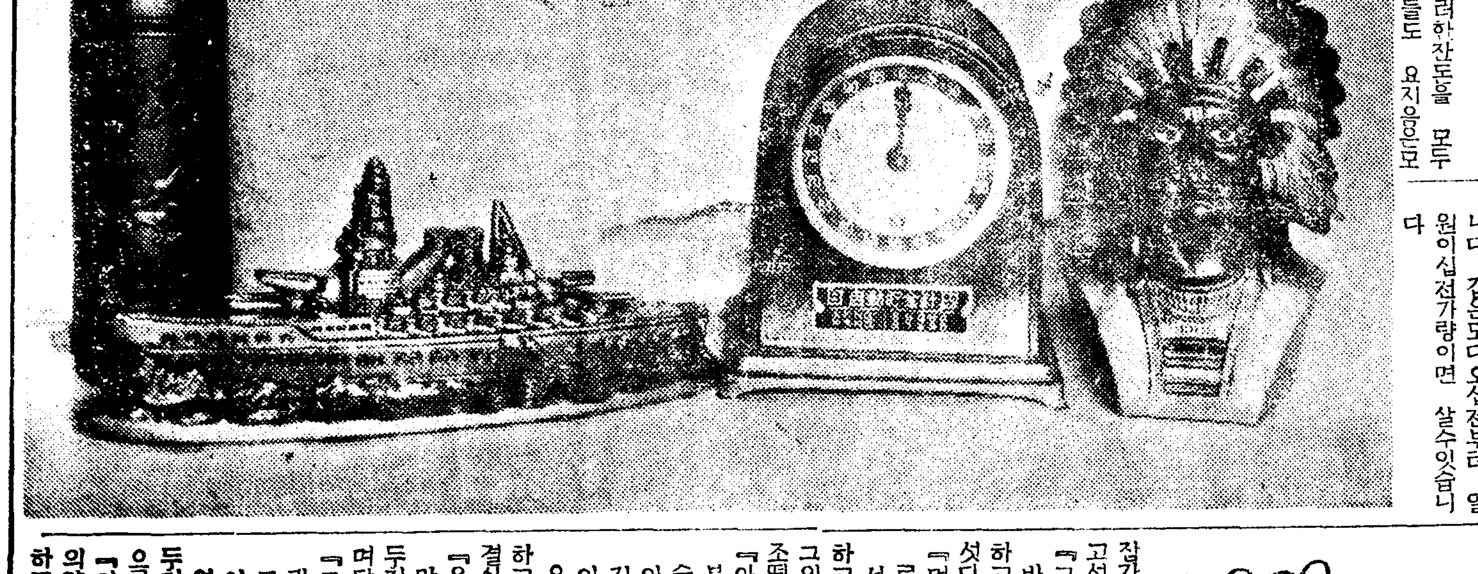
반찬살때 일전남은것은 말로는 그다지대단한것이 안이나 이것을도막도막 모아노흐면 나중에제법뭐직한 살림사리의 한모를막도록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잔돈을 모두어둘 저금통들도 요지음은모다비상시를 표현하야 이상한것들이 만히 나와잇습니다. 그중에는 강철로만든것도잇고 사기로 만든것도잇스며 나무나 안지모니-로만든것이 만히잇스나 그중에도 제일값시헐한것은 사기로만든것입니다. 이사기저금통에는 대개열쇠가업스므로 그냥낸수가 업슴으로 나종에는 깨트리고내여야합니다 갑은 십전내외입니다.

나무로 만든것도 갑은대단히 헐하나 열쇠가불완전하야 저금하는습관에 방해가됩니다. 사진에잇는 형은 비상시를 상증한것인데 대단히 견고하며 금번에 처음으로 나온것입니다.

그다음 시계형은 오전짜리와 십전짜리만 너케되엿스며 열쇠가업고 오원이되면 제절로 밋바다이 열려지게되여잇습니다 오원이되기전에는 죽어도 열리지안흐며 정면의시계처가튼것은 드려잇는금액을 나타낸것입니다.

그다음 아메리가인디안형이잇는데이것은 중등학교남학생들이 쓰기에적당하게되여잇습니다 갑은모다오십전부터 일원이십전가량이면 살수잇습니다



나의주부
양복에술이 떠러지거든?

양복바지에나 가슴에 술이 떠러진자욱은 그냥두면 지지안습니다 곳 지우도록하십시요

제일조흔방법은 술이떠러지자 곳 담배연기를 한목음 그자욱에 부러너흐시요 그리하야 천천히 손수건가튼것으로 딱그면 이상하게도 지워집니다 아모리취하야 정신이 몽롱하더라도 이방법만은 부대 잇지마러달라고 밧갓양반에게 당부하세요

우리차지

사금파리

(금순사립 윤노마)

숨자 숨자
사금파라 숨자
길바닥에 떠러진
사금파리 숨자
맨발벗고 가는애
발바당에 피날랑

가정의학

옥수수수염이 신장병에조와

조약이라해서 밟둣이 엉터리업는냥 생각해서는 잘못입니다 옥수수의 끄테부튼털은 어린애들이 가저다가작난감이나 만들고버리는것이보통인데 이허잘것업는옥수수수럼로 그냥버리지말고 말리여두십시요

신장병(腎臟病)알는사람에게아조특효가잇습니다. 한번에 옥수수털을 다섯몸메나 일곱몸메즘 약탕관에 끄려서 먹으면 맛도쓰지안코 수박당(糖)과 맛찬가지로 오줌을잘나오도록 도옵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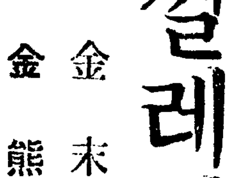
배속에소리

문 금년삼십팔세의 남자외다 밥을먹으면 명치끗이 몽클하오며 헛배가불룸니다 공복에배에다가힘을주고숨을쉬면 꿀적꿀적소리가납니다 밥은먹구시푼데배가아퍼서먹을수업소 병명과약명기타 자택치료법을가르처주소서 (金浦 一讀者)

답 구미는잇고복부의통증만잇는거스로보면 위혹은십이지장에 궤양(潰瘍)이 발생되것갓습니다 가정에서 주의할거슨 유동식으로소화되기 쉬운것을먹게하고 자극성음식은 절대로해롭습니다또 과격한운동도 몸에해로우며 통증이심할때에는 안정하게할거심니다 처방약은 증세에따라 분량이일정치안습니다 그타『이스우르크스』또는『스트무린』D의 주사를맛게하시요 궤양증이잇슬때에는 자기가정치료는 어려우니 근처내과의사에게 치료를밧게하시요 (醫學病院長 朴秉來)

長篇小說 찔레꽃 【117】

金末峰 作
金熊超 畫



찔레꽃 四

잠간동안 아버지의기색을 살피고섯든 경애는

『그럼 아버지께서는 이혼인을 반대하신다는 뜻이십니까?』

하고 아버지편으로 한거름다어섯다

『머 반대라는건 아니다만 나로서는 조금 거북한생각이잇서서 그럿탄말이다』

하고 두취는 무엇을생각하는지 그의 먹과가티 숫한 눈섭이자조떨고잇다

『아버지께서는 엇던의미로 거북하시다는 말슴인지 몰르겟습니다만 도한가지만 업다뿐이지 그만한청년이 그리흔하지는 안습니다……더욱이 그이는 저생명의 은인이아니야요?』

하고 입을다무러버리는 경애의 결심은 비상한모양이다

『은혜를갑는뎬 꼭결혼을 해야만되는거냐?』

두취는 연해 딸의기색을 살피며담배를끄내문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만……민수라는 청년이면 저는 결혼해도조타고 생각을한이외에 그이는 저게은인이라는것도 기억하고 잇다는 말슴입니다』

두취는 잠자코안젓스나 그는속으로

『이럴줄알엇더면 진작 정순과의약혼을 발표하고말엇슬걸…』

하고 혀를찻다

임의 그딸경애가 민수와 결혼을하겟다는데 부친되는 자기자신이 그의외사촌 누의가되는 정순과결혼을 발표하기가 엇던지 거북하게 생각이드는까닭이다

오늘다시 경애를불른것도 경애의뜻을 다시한번 살펴가지고 될수만잇스면 절부터 혼담이잇는 윤영환과의결혼을 권고해보고십흔 목적이엇스나 며번들어도 갓흔말을 딱잘라서 말을하는 경애임에 다시더 무엇이라고 할말이 나오지가안는것이다

『아버지께선 그럼 제가평생독신으로 살아가는것을 원하세요?』

하고 경애가 뱅긋이 웃는것을 보고

『아 아-니 그럴리가잇나 하지만 민수군과 약혼하는게 암만해도 어울리지가 안탄말이지……』

하고 두취는 어색스럽게 우서보엿다

『엇재서 어울리지가 안탄말슴얘요? 첫재 인격과건강 둘재교양 어느점에 불만이게서서 하시는말슴얘요? 네아버지? 아버지께선 무어라고 하시더래도 전 민수씨와 꼭결혼하고 말테니까요』

파르르 끌어올르는흥분을 참노라고 경애는 그어엽분 얇은입살을 꼭깨밀고섯다가

『아버지! 민수씨만 하더라도 저와 결혼을하기위해서 아주 크-다란 희생을 하고잇스니까요』

경애는 다음말을하려다가 흠칫 입을다처버렷다

『희생이라니?』

하고 두취는 의아스럽게 딸의얼골을 훌터본다

『저를알기전에 엇던처녀와 혼인말이 잇섯더래요 아주 양전하고 얼골도곱고 맘씨도 착한 처녀엿서요……그런데그럽에 민수씨는 저를 위하여 단연코 저편의 혼인을 거절해버렷거던요』

『무엇이엇재?』

두취는 잠간동안 어리둥절하여 딸의 입만 직히고안젓다.

『저편의 처녀는 무척 몸이달아서 청혼을 위하여……어떤 모험까지 햇더래요……그래도 민수씨는 저때문에 저편의 호의까지 저버렷섯이여요』

『아 아-니 그럿타면 민수라는 남자가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냐……그럼 장차 너와약혼한뒤에도 또그러케 네게도……』

『일업습니다 아버지! 민수씨와저는 어떤숙명적(宿命的)으로 매저진 인연이기때문에좀체로 그런불행은 업슬줄밋습니다요』

하고 경애는 갑븐숨을 쉬노라고 호-하고 한숨을내쉰다

『결두가아니 민수기말야 괘이네맘을사랏고 지어낸사실인지 어떠케 아느냐말이다』

하고 두취는 뻐-뻑 담배연기만뿜는다

아버지의얼골을 빤히쏘아보든경애의입술이 두어번떨렷다

『아버지! 민수씨는 아버지처럼 그렇케 거즛말하는사람은 아니야요 바로 증거를 대드림가요 민수와 혼인말이 잇섯다는 처녀가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정순이야요 정순이』

하고 십어뱃듯이 경애는 말끗을맷엇다

『아 아-니 건또 무슨소리냐』

두취는 자기도몰르게 목소리가 놉하젓다 딸경애에게 『민수는 아버지처럼 거즛말하는 사람은아니다』란말이 그의비위를 거슬렷는까닭인지도 몰른다 그러나 그보다도 민수와결혼말이 잇섯다는 대상이 바로 정순이라는 말을 드를때 두취는 놀라지안흘수업섯다

질투에갓가운 분노가 그의말초신경을 할고지나간 다음순간

『아-니그럼 정순과민수는 폔 남남간이더란 말이냐?』

하고 힘잇게 고개를끄덕이든두취는 모든것을 알어섯다는듯이

『네가 그처럼 원하는이상 나도 구태여 반대하고십지는안타』

『아버지!』

하고 소리를질르며 이러선경애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삽분 고개를숙엿다 순간 구슬가튼눈물이 경애의 속눈섭을 적시엇다

경애가 도라난간뒤 두취는비로소 무거운짐이 버서진대처럼 후-하고 큰숨을내쉬엇다

민수와정순이가 남인줄로몰르고 오늘까지 경애에게 졸리고잇섯든것을 생각하면 우습기도하다

『인격은 그만하면돼지머……돈이야 압흐로 얼마든지 벌수잇거든』

두취는 자기의결혼당시를 도라보고 만족한듯이 빙그레우섯다

딸경애가 생명을내걸고 간청하는결혼을 승락하여준 두취는 미상룰 상쾌하엿다 그보다도 자기의목숨갓치 귀여운정순을 빼앗서갈번하엿든 청년이 경애와결혼함으로 영원히 정순에게서 떠나간다는사실은 진실로 일조이석(一擧二得)이 아닐수업는것이다

인제는 아무때나 정순과 약혼발표를할지라도 조금도 거북할까닭이 업는것이아니냐

어느분에게나 三百頁의 大冊을 거저드립니다

여러분! 자기는 꼭무병하다고 밋는분이 몃분이나 게심니가!!

지금 곳 읽어 주십시요

어느분을 물론하고 오래 기를 바라며 무병하게 생을 보내도록 바라시는 것은 사람의인정이오나 자기몸속에 무서운 병균이 잠복되여잇는 것을 몰으시고 게신것 처럼 위험한일은 업슴니다 『자기몸은 비교적 약한분이나 이것을은 그대로두고 기내여도 무방하겟지』하고무히 지내시다가 돌연히 발되야 비참한 일평생을 보시게되는 분이 만흔은 로 딱한노릇입니다

피를토하시자

이게 웬일야!하고 허둥동마시고 늘 미전에 예방이 필요합니다 신열이나고 기침이나며 구미가 떨어지시거든 위병이나 기이놋줄알고 예사로 생각마시고 곳 치료를시작하십시요

기가허해젓다

고 낙담마시고 아직 그럿케 될 나히도 못되엿는데 웬일인가 하고생각하여서 곳 그 원인을차저서 보음보양을 사시 다시곰 원기잇는 몸으로 회복하여주십시요

가장무서운것

은 잠복되엿든 梅毒이 발현하는때입니다 그비참한 신세가되는것은 다시말할필요가업스니 그엇지 자기가족과 더한층 나가서 자기나라를위하야 또는 자기신세를위하야 료를 등한히 할수잇겟습니가

반듯이원인이잇서서그런것이니 그것을어느분이라도간단히곳칠수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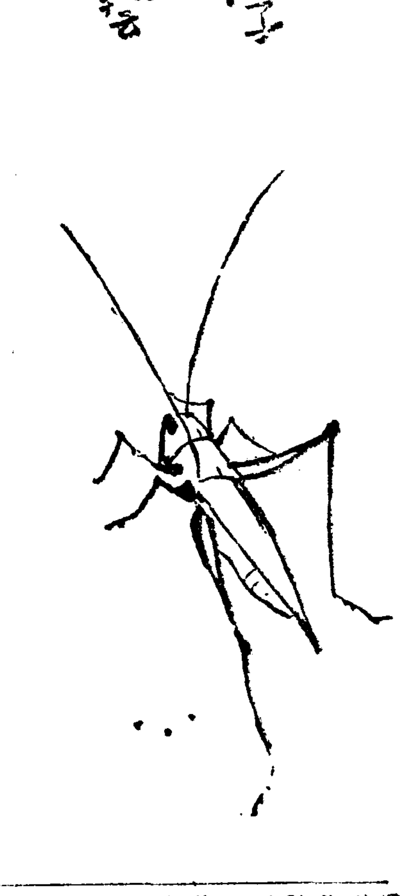
지금 의학계에서 一大센세숀을일으키고잇는 萬病通治療法의학설을 기록한 山崎英治醫博士著述의『絶對健康法』과(三〇〇頁) 조선국문으로 쓴『絶對健康이되려면』이라는귀중한 의학지식의 서류를여러분의 새로운生命을위하야 거저드리오니

본보애독자라고 쓰시고

東京市神田區神保町 アルス로

통지하시면 어느분의게도 두권의 귀중한 책을 거저드림니다

學藝



戰爭文學 (五十)

徐熙却敵과詩

湖岩

契丹役은 高麗初期의最大國難이다。契丹이 前後 廿七年에 亘하야三回나 大擧入寇한바 그第一回는 곳成宗十二年 蕭遜寧의入寇이다

當時契丹은 國號를 遼라稱하야 滿蒙및北中의 廣大한領域을包括한 東亞强國으로 그威勢가 南方宋을 壓倒하엿다。그런데高麗는 南方宋과 親善하고 北方遼를 疎斥하므로 遼國이 이에마친내來攻함에 이르럿다。

一朝 大敵이 壓境하매 廷議가 紛紛하야 或은割地講和를主張하니 平和主義의成宗조차 此說을 從하야 岊漢(義州)以西를 敵에게割讓하려하엿다。滿廷이 모두 이割讓論을 賛成하는판에 홀로 內史侍郞徐熙가 不可라고 反對하더니 마침 敵이 安戎鎭(安州)에서 高麗軍에게敗하야 進取할銳氣가 무지게되어 다만降服만 催促할을보고 徐熙스스로 國家를 代表하야 丹營에 나갓다

徐熙는 敵將蕭遜寧과 對等의禮로써 相見한後 談判할새 먼저 入寇한理由를 詰問하고나서 徐熙가 辯駁하야 갈우되 我國은 高句麗의後裔이므로 國號는 高麗이오 國都는 平壤이니 만일 地界로 말하다면 貴國東京이 我境內에 잇거늘 어찌侵蝕이라하는가。또朝聘不通은 鴨綠江內外에女眞이 梗塞한때문이니 만일女眞을 驅逐하고 道路를開通하면 어찌使聘을 修하지안으랴。徐熙는 이처럼 辭氣가 慷慨하고 態度가 强硬하야 敵將으로하여금 마침내 屈從케하엿다。그리하야 鴨綠江內外地를 高麗에 讓附한後에야使聘을 通하기로 和約을定하고 退去하니 大抵徐熙는 寸舌의力에 能히一言으로써契丹가튼强敵을 물리첫슬 뿐더러 이를 利用하야 도리어西北境의 領土를 開拓하엿스므로 外交上大成功이다。徐熙는 그史論에 이일을 許하야갈우되 宋景德年間에 契丹이南侵할때 中外一震駭하야 群臣中에 或은金陵遷幸을 請하며 或은成都遷幸을 請할새 帝의親征을 勸한이는 오즉寇準一人이잇슬뿐이오 慶曆에契丹이 再侵할때 群臣이 疑懼하야 敢히 報聘하지못할새 單車로 虜庭에 드러가 口舌로干戈를 대신하야 且請且和해서 國難을 떠우게한이는 富弼一人이 잇슬뿐이다。遜寧이入寇할때 群臣이 或은 乞降을 主하며 或은割地를 主하야 成宗이 割地說을 從하려할새 홀로徐熙가 一戰을 主하니 이는곳 寇準의親征策이오 또丹營에나가 講和成功한것은 어찌 富弼에게 내리라하엿다。金桑養은 이를 詩로써 퍼갈우되

用兵求賦遣 割地講和議 徐熙功再造 不讓寇萊公。

自省의歸着地

—最近評壇에서느긴바멧가지— ③

金南天

『思想、生活에對한自省』이란標題下에 前後三回에亘하야 論述된李軒求氏의 思想的、文學的生活에잇서서의 不感症과惡弊性을 討究한文章을 나는퍽 好意잇게 읽엇다。그리고 大體로 氏의眞摯한 自省態度에 만흔共感을가질수도잇섯다。그러나 氏의 討究의結論과 그리고 論述過程에서發見하는 몃군대에對하야 全的인 讚意를表할수업슴은 遺憾이다。假令 氏의思索이 가장正當한表現을가질려고할때에 나는 氏의 前記文章第三回의첫머리에서 이런것을發見한다。

『政治的意味─政治性─라는것은 筆者가論謂하기에 너무나 큰問題이매 敢히 그에부닥치라고하지는아니하나 오늘의世界文化─藝術─의現象動向이 이政治的意味를떠나 純粹한文化圈內에서만 論議할수업게되는것은 最近數年來의文藝思潮의傾向에서充分히 發見할수잇거니와 이政治的意味란것은 統制와抑壓을 意味하는바外部의制限을말하는것이니 藝術은 自由의產物이라는 平凡하나 實로不變할眞理의一句를 거듭認識할바오늘에이르럿다』

李氏의 이런글에對하야 爲先우리는 氏의思索이 갈리는곳에對하야 數만흔發展的契機를 捕捉할수는잇스나 어덴지 모르게 不安한것이 숨어잇는듯한 느낌을禁할수가업다。文章의行간사이를 細密히 살펴보면 이러한느낌의根據가 明白하여지는 同時에氏가 自省의歸着點으로 落着한結論의 制限性도 뚜렷히될수잇을것이다

李氏는 政治性에 對하야論議하기에는 너무나自身의그림자가 적다는것을 말하고잇다。이것은 勿論氏의 謙虛이려니와 나는이러한 氏의 論述에서 謙遜以上의것을 看取할려고한다。다시말하면 政治에 對한 一種의懷疑와 恐怖를 李氏에게서 發見하게된다는말이다。이런것은 政治的意味란것을 外部의 制限으로만 看做할려는 氏의 그다음論述에서도 엿볼수잇고 다시이러한 政治의 文學에의 干涉이 最近數年來에 비롯한것가티생각하는 句節에서나、或은 氏가不變의眞理라고하는『藝術은自由의產物』이라는말에도 나타나잇는듯십다。

그러나 나는아무리 一個의文學者라고하여도 政治에對하야 이러케 謙虛하거나 또는謙卑할必要는업다고 생각한다。人類가아득한옛날에서 生活하기비롯할때부터政治란것은 어떠한사람에게서도 떠나지안헛다。農民에게도 文學者에게도 詩人에게도 政治란것을 떠나서 生活이란것이 爲되진적은업섯다。

李氏는 氏의思索을『藝術은自由의產物』이라고 記錄하얏지만실상은『藝術은 自由를爲한 抵抗의產物』이라고 表現하는것이더옥 正當할것이라고 나는생각한다。다시 文化人、藝術家는 政治에對하야 두려움을느끼는데서 美德을늣기서는 안될것이라고생각한다。그것은 一個의 社會的公人으로서의 權利抛棄일뿐아니라 實로 政治에對한 文學의從屬을意味하는때문이다。우리는언제나 生活의속에서 文學을길러왓다。그리고 우리들의 生活은 언제나 政治를 떠난적이업섯다。『밥짓는食慾까지 政治는아려야한다』는有名한말이잇거니와、思想生活을 發露하는文化人이 이에對하야 부닥치기를忌避한다면그自省이 어떠한것이될는지는 明白하지 안흘가。

그러므로 李軒求氏가 나의告後文學提唱에對한 若干의杞憂를 적은뒤에到達한 氏의 自省의歸着點은 現實에서의 客觀的後退와 生活精神으로부터의 離脫이되지 안흘수업섯다。

『그러면 그대는 어떠한文學精神을가저야한다는것이냐?』하고 李氏는 自問하면서 結局이무름에對한대답을 이럿케記述하고잇다。『文學的潔癖!高尙한敎養으로서의思想的肉體를 釀成하라』

이것은 한개의主觀的인情熱이기는하나 決코하나의 客觀的發展策은될수업다。『誓』을아직도遙遠한將來에마라손의選手가목이마르고숨이차고날이또겁다고하야그늘속으로 뛰어들어安息을 취하는것은 그自身으로서는 엇떠케도할수업는 唯一의길이라고할는지는모르나 現實의바퀴가 끈임업시 다라나는마당에서의 이러한生活에서의 乘備밧게는 낫지못할것이다。

作家、評家의 對立

(九)(月)(創)(作)(評)(4)

李源朝

李暉鄕氏의『初戀記』(戲曲)─朝光─과 李東珪氏의『罪의烙印』─批判─은 두편이 다 稱意치못하다。다른 細部에 直한 이야기는 다말할것업시 첫재 初戀記를보면 처음부터 끗까지 영진이라는 肺病患者의病的興奮에서만 終始하엿지 決코 劇的構成이되지안헛다。게다가그 興奮이라는것이 淺薄한『文書』程度이여서 조곰도 感動되지안는다。

『罪의烙印』이라는것도 小說形式으로는 極히 單純한 說話體인데 小說에잇서서 이러한 說話體니 日記體니 書簡體니하는것은 그體裁에 따라 獨特한 妙味를 가지지못하면 아모런效果도 업는것이다。그리고 이러한 테-마라는것은 벌서 그事實自體가 一種의 偏奇性을 가진것임으로 이러한 테-마를 取扱하는데잇서서는 비록 敍述에서라도 普通사람의 常識으로서는 想像도못할만한 深刻味가업스면 讀者에게 眞實感을 주지못하는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테-마는 讀者에게 眞實感을 주지못하면 效果는 零일것이다。

以上으로 作品은 다읽은셈이다。다음으로 興味잇게 생각한것은 亦是『朝光』에 評家와 作家의말을 드러다 실은것이잇는데 이것은 出題의 眼目이 어데잇는지 모르겟스나 요사이評家와 作家의 對立이라는 말이 만히 流行하는지라 이問題에對해서 若干의 생각나는바를 이야기해보기로하자

對立이란 勿論 두개의 存在가 서로 떠러저 反撥하는것이지마는 이러한 反撥은 그關心의 對象을 同一한 領域에 두지아니하면 안되는것이다。그럼으로 對立이란것의 根本的槪念은 個體의分裂에잇는것이아니고 실상은 全體의分裂에잇는것이다。그러나 오늘날에 우리 評家와 作家는 무엇으로서 共同한 關心의對象을삼는가? 創作方法에對해서인가? 文學하는態度에對해서인가? 대체로 이러한 全體的인 關心의對象을 찾지못하는 오늘날에잇서서 評家와 作家의對立이라는말은 그야말로主人업는집 허風流에 지나지못하는것이다 그야 評家와 作家사이뿐만아니라 作家와 作家사이에도 不和가잇슬수잇고 評家와 評家사이에도 反目이잇슬수잇슬지마는 이러한 個人間의 感情關係를가지고서 무슨 큰일이나잇는듯이 評家와 作家의 對立이라는말로 虛張하는것은 우수운일이다 戰爭이라는것도 國家와 國家의 主權이 싸호는것이지 決코 한두사람의 國民的個人間의 不和를 가지고 戰爭이라고하지안는것과갓다

그러니까 오늘날과가티 作家나 評家가 아모런 共同的인 關心의 對象을 갓지못하고 서로 제멋대로 方向도 立場도업시 混迷한 狀態에빠지면 모두가 제대로의 個人밧게는업슴으로 些少한 感情의 軋轢는 더 심해지니까 도리혀 바래야할것은집다운 意味에잇서서의 對立이아닐까?

登。。山。。篇 (七)

萬歲! 漢拏山

—情熱의藥、岩高蘭열매—

李殷相

이가리 灌木地帶를 허위고오르자 約半時間頃에 右便으로手尋蒼崖가 行人의굽힌허리를 펴게하는 곳은 俗에이르되『안망은다리』라하니저 萬頭峰下의 망은다리라함과 아울러 그位置의內外를 表示함이다。

全部가 檜林인테 뭉기는구름거치는안개속에 飄颻自在한 壯觀美觀은 屈曲업는 寂寞한 高原머리에 君臨한 翌菱시매 바라보는그대로 瞻仰의 부르지짐을 참을수업다。

돌아나려 구름속에 끗을잡근庭線連峰을바라보면서 그대로高原의 꼭대기를向하야 오르는길에 一行은 숨차고 疲困할도 알지못하고 연방허리를 굽혀 岩高蘭의열매를 따먹기에 바뿌다。

岩高蘭의열매는 팟알만콤한 색깜안 열매인데 머루다래 맛이난다。高原全面이 온통岩高蘭의 열매라 따먹어도 따먹어도 흔하고 풍푼하고 남고 처진다。

이열매를 따다가 城內에들어가 팔기까지 하는것인데希症에 藥効가 잇다는말에 一行은더욱 貪하야 한입식 半입식 털어너허 입술마다 검은물든것을 서로보고 웃는것이다。

人情이 돌가티차고 사랑이 얼음가티 찬이에게도 이岩高蘭열매가 情熱의 藥効를 낸다하면은 나부터 一斗一石을辭讓치안하야 하려니와 저아래차운세상에 이希症고치는 열매를 大量으로 貿易할일이 아니겟느냐하고 이야기 하다말고다시 허허 웃는것이다。

땅따리 岩高蘭에
동글동글 매친열매
차운病 낫는다기
나도한입 너커니와
저아래 어름세상을
고처볼까 하노라。

그겻헤 樂香草의 紫花떨기는岩高蘭의 못總角사이에서서 處女와도갓다。

구테어 풍기려하지 안건마는저절로풍긴는 淸香이行人의 눈섭에 우숨人금을 흔들어노코제라사 도로수집어 한나비 나래보다 더부드럽고 엷은花瓣으로 제얼골을 가만히 덥는것은 반듯이 지나가는 바람때문만이 아닐것이다。

한時間이나 오르는 岩高蘭의 高原은 單調로웁바게 아무것도업건마는 이가튼 잔재미에 支離한줄도 모르고 오르는것이다。

高原머리에 올라서니 등넘어로 小里인지 百里인지도모를非嚴한樹海가 造化의 雄邃한 構圖속에 神秘로운 裂谷의물결을 이르키며 넘실거리는냥은 저『봄비니』의光華로 말할것도아니오 저『因陀羅網』의 眩惑으로 비길것아닌、悅惚不可解의 景觀이라고 밧게 말할길이업다。

바른편으로 꺽겨들어가매새삼스러이 이峰頭에 挺秀한古木이 나고 썩고 얼키고 설키어 灌木이라도 자취를감추어야할 곳에 이무슨 奇蹟으로 森林이 들어섯나하고 어리고 어설핀 科學의눈을 깜박이게 하는것이다。

千萬里 구름밧갓까지 마음것보기를 許諾하시던데가 벌서지나온 저高原인데 무슨일로다시여기에 咫尺을 숨기고 四方을 封鎖할듯이 서두시는가

문득 마른나무의 불어진가지가 鉛劍을 내어밀어 가슴을막고 다시문득 얽힐어진덩쿨의 사래가 羅網을 펼처발을묵는다。

우리가 萬一 이땅의 大自然、大血統으로부터 생겨난嫡孫이 아니엇던들 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서슬에꿀어업드어 險阻한巡禮를 謝하고 여기서 돌아섯법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威嚴도美德의表現으로 생각하는 安心속에서 오히려 무슨거룩한 展開가 잇슬것을 豫期하는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鍊載의 艱關을 버서나자말자 고대눈압헤 磊落한 上峰이 嚴肅하게도나타난다。

最後의三分間、우리는 무거운다리를 끄을듯이 달린다。

금시로 狂드난 사람들가티 뛰지안는이가 한사람도업다。

어듸서 생기는 새기운인지 저도모르게 피외힘으로 터질듯한 갈과다리를 한꺼번에휘두르며 頂上으로 채어오른다

아!咫尺의頂上!

最後의 돌뿌다귀를 마스막으로 밟고서자、우리는 約束한듯이 두팔을 뽑아이 놉히들고 萬歲、萬歲、漢拏山萬歲를 웨치고 또부르짓는다。

男兒의快意를 뉘가 알겟느냐。가슴을 차고차다 삐기고터저넘는 無限한感激에 두갈이 저절로 휘둘리고、고함이저절로 터졋는데 그리고도抑制못할 感激은 눈가에 까닭업는 눈물이되어 펑하고 솟는것이다。

금시로다시 石人이 되엇느냐눈도감고、입도다물、四肢조차 구든듯이、바람압헤 우뚝서서 구름안개 마시면서 어찌하야 금시로 다시 石人이되엇느냐。

鎭定할수도업고 鎭定할것도업느니라。네가슴이 터지는대로두어라。네가슴이 웨치고시픈대로 지금 이頂上에 서서 노래하라。天地를 向하야 노래하라。

(사진은 頂上의快意)

南洋通信 (四)

蘭領東印度의風光과經濟事情

李永春

二十三日午後四時 배가『스라바야』埠頭에 到着하지 數名의 土民兵의 統制嚴叢下에 白人、黃人二名의 移民官이 上船하엿습니다 白人은 蘭人이요 黃人은 滿洲人이라고 들엇습니다。『사론』船長室에 蘭人移民官이着席한後 船客每名에對하야 旅行券과 對照呼名하고 嚴格한 態度로 來國目的과 滯在期間을뭇고 入國稅納付證(入國稅는 船內事務長이 豫收함)을 調査한後旅行券에 捺印署名하고 各自에交付하얏습니다 今般會議出席者에 對하여서는 政府의指示로 入國稅를 免除케되얏습니다 入國稅는 蘭金百五十盾(約二百圓)로瓜哇上陸時 移民局에 納付하는것인데 六個月以內에 退去하는者에게는 最終出帆港移民局에서다시 納付證과 交換하야 現金의返還을 밧을수가 잇는것입니다 船客의 거이全部는 그親族友人 又는 緣故紹介로 埠頭에多數出迎者가 기다리고 잇스며 移民官의 檢査가 畢하자 一同은上陸、반가운 握手들을 交換하면서 各各 市內로 도러갓습니다。一人의知友 紹介도업는 나에게는 形言할수업는 寂寞을 늣겻습니다。나의 最終上陸은『바다비아』(Batavia)이지만 今般旅行에 다시찻지안을 이곳이므로 一泊寄港을 利用하야 異國 첫風景을 보고십허 一同의 뒤를따라 上陸하기로하엿습니다。瓜哇全體의 交通機關 運轉者가 거이土民이므로 瓜哇語、馬來語가아니면 通用이안됩니다。英語는 蘭人經營의『호텔』、商店이면 大槪通用되고 蘭語는 蘭領이로되 土民에게는 가르치지 안는것이 原則이올시다。土民小學校에서는 純全히 馬來語를 敎授하고 蘭語는 官公用文書에 使用하고 一般民衆에對한 告知가튼것은 馬來語와中國語를 使用하는것이 普通이올시다。나는 勇氣를내여 自動車를잡어타고 船中에서習得한不完全한馬來文句『사야(나는)페기(간다)호텔야파나(日本人旅館)』를 應用하엿습니다。運轉手는 알어들은視樣으로 그대로市內로 다라낫습니다 때는 午後五時頃(朝鮮時間六時半頃)市街地 까지에는 約五里가 남는데 道路는 至極히平坦한『아스활트』路로 左右側에는 椰子나무와일은모르는熱帶樹木이 그늘조케茂盛하야 長途海上生活에 疲勞된心身에 淸快한 慰安의氣分을 주는것이엇습니다。市街地에드러서매街路左右側에 羅列한 家屋은靑紅瓦의 煉瓦造平屋으로 壁은白色은卵黃色이고 窓은靑紅黃紫等各種濃厚한彩色으로裝飾되고 집마다前庭에는 가지가지의 花草와花鉢가운데 關草과『벤치』가 노여夕飯後에는 日中灼熱의 暑氣를잇고 夕風에淸涼하는 光景을想像케하엿습니다。約十五分이 지나서 市街地中央을되다는 東京『호텔』에 到着하엿습니다。

『스라바야』는『바다비아』에다음가는 蘭領東印度第二의 大都市로 人口約四十萬 東印度全島의 貿易中心港으로 各國大會社의支店이 만코 世界三大寶易商의一이 이곳에잇다합니다。市街地는『가리마스』河南岸에 跨在하야 河口棧橋附近에는 會社倉庫가 櫛比하고 港內에는 常時各國汽船이 輻輳하야 其繁華는 日本大阪에 比할것이라하겟습니다。『호텔』에서 小憩後에 午後六時까지 入場할수잇는 當地名所 動物園에 차저가습니다 規模는 큰편이 아니나 動物種類는 熱帶產이 多數로 그中에는 世界에서 一三處所外에 업다는 本島產으로 恰似히『장미리』와가튼 體長約七八尺되는 俗名巨龍이 異常하무섭게되이고 猿人類『오-랑·우-탕』의 知慧피는 光景이볼만하엿습니다。그外水族館、動物標本室等을 一巡하고 旅館으로도라와 夕食을마친後 案內者一人을어더『스라바야』의 夜景을보게되엇습니다。

漢詩募集

題 秋夕

押 明

期 九月十五日

鍊金術

文藝誌와文學賞

一步生

眞正한 文學의發展을 爲해서 나는 두가지案을 提唱한다

그하나는 『文藝雜誌』의 叢出과文學賞制度의創定이다

文藝雜誌는 百花를 기르는 동산과가터서 그럼雜誌가 만흘수록 百花는 더요란히 競艷할것처럼文藝界는旺盛해질것이안일가? 따라 그質에잇서서도 참신 向上될것이 안일가? 現在朝鮮처럼 文藝雜誌하나업시 다시말하면 百花를 기를 동산이 업시 어떠케 그妖艶芳香의 百花를 볼수잇슬건가?

勿論 一般雜誌와新聞에서 하는바이다。

그리고 文學賞制度의 創定의 意義는 일즉 年前에 이에對한글을 쓴일도 잇지만은 이制度는 文學發達을 加速的으로 도웁는데 크다란 意義가 잇슬것이라고본다 이것은 벌서 外國에서 創定된지 오래인일이고각가히 日本內地文壇에서도 數年前 創定되여 지금은 四五種의 文學賞制度가 잇서 그것이 끼친바 功績이 큰것은 이제 새삼스러히 말할 必要가 업는것이어니와 아모리 貧弱한 朝鮮이라하드래도 只今쯤은 面目上으로 보드래도 一、二個의 文學賞은 벌서 創定되엿서야 할것이다。

그리하야 文人으로하여금 한層더 이文壇에 愛着을갓고 努力하도록햇슴것이다。

勿論 藝術家가 商人과가티 어떤 物質的利益만으로 글을 쓰는것은 아니지만 文人들의 意氣를 도두어주는 意味에서 이런 制度는 크게 意義잇는것이 아닐가생각된다。果然 이에 對한 有志는업슬가? 待望하야마지안는바다。

秋窓囈言 (三)

順風과逆風

—藝術家의自殺的인佇立—

鄭飛石

지난여름에 오래동안 芄田을 직켜오는 詩人L兄을맛나 요새는 왜 쓰지를안느냐구 물엇드니 L兄은 勤務時間임에도 不拘하고 대뜸 나를 茶집으로끌어다안치드니 다음과가튼 얘기를한다

『글세! 쓰긴 무엇을 쓴단말이오? 잇소? 아! 오!하고 요새 나오는詩가튼것을쓴다면 나도 얼마든지 쓸수잇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되우? 良心에 꺼리여서 그런것을 어떠케 詩라구 내노켓소! 그러타해서 바른詩를 내노흘수잇느냐하면 도저히 그럴수도업고……또 말이야 바른대로 그런詩를 쓸수잇다해도 그것을 行할勇氣는 더욱업거든요! 그저 떠렴마지요』

나는 L兄의 率直한 良心的苦憫의 告白을듯고 잠간 머리를 수그리엿다 勿論이苦憫은 L兄個人의것만이 아니라 인테리一般의 時代的苦憫임에 틀림업다 말하자면 良心的인 인테리들은 現階段에잇서서는 順風이냐、逆風이냐하는 두길을 생각하면서 그어느것도 採擇치못하고 떠렴마에 빠저잇는셈이다 이런事實이 오늘에 始作되엿슨 아니지만、오늘날처럼 深刻化한적은 업슨것이다 눈에보이지는 안으나거이 肉體로서까지 느길수잇는이 苦憫相을 어떠케 물니칠수잇슬까? 積極的으로거나 消極的으로거나 이苦悶相을 물니치고 生活하여 나가지안을수업는 處地에잇는것이 인테리層이다

結局 두길박게업다 그런데만은 인테리들은 特히 良心的 進步的인 인테리들은 이두길의아모것도 擇하지를못한채 떠렴마에 빠저잇다 진실로 良心的인 사람은 萬難을 물니치면서도 所信대로나가는것이 올흘것임은 말할것도업다 그러나 萬若에 그만한勇氣이업다면 도리혀 方向을 百八十度로돌녀 故意的으로라도그 反對편밟는것이 올흘것이다。떠렴마는 良心的도아닌 어디까지든지 떠렴마인 反面에 活動은 어느點으로 보나 活動이다 活動인 限에서 變化를 나흘수잇다 떠렴마에빠진채良心을 保持한다는것은 自己欺瞞에 지나지못한다

勿論 良心으로 行動한다면問題는업다 그러나 그러치도못하다면 그反對로 되는것도 良心이 가장 熾烈한 反證이라는것을 알어야한다

逆風을 거슬러도 나갈수 잇는사람이라야 順風에도 나갈수가 잇는것이다。良心의 重壓아래 견되어 내기가 어려운때는 意志的으로 그拘束을 떠나 猪突的으로 덤비어 보는것도조타。

日前에 어떤 친구에게 이런말을 한일이잇다『물고기는 모두가 물세에쫏아 헤염친다 그러나 鯉魚만은 물결을 거슬너오른다 鯉魚는 물결을 거슬너오르는 거기에 한快樂이 잇을것이다』라고。

앞으로 나가는사람에겐 길이열닌다 물너가는사람에게도 길은잇다 그러나 佇立해잇는 사람에게는 길이업는法이다

特히 藝術家에 잇어선 이點이 重要한 問題다 藝術家는 自己를 欺瞞할수업는 種族이다 藝術家의性格은 自殺的行爲인 佇立이라는것을 容恕치안는다 어느길이나 거릅수밧게업다 그러케 고지식하고 直截한것이 藝術家의 性格이요 特徵이다 그러치못하다면 그는藝術家가 아니다

우의말은 李泰俊氏의 卓見이거니와 또 나의意見이기도하다 이機會에 나는 이말을 L兄에게와 또 가튼雰圍氣에 잇는未知의 兄들에게 들려드리려고하는바이다

智識階級이란 그高尙한思索을 가지면서 行動은 왜 그러케貧弱할까? 거듭 말하거니와 藝術家는 어느길로든지 거러야한다 (完)

世界所聞

剽竊의傑作小說

『바람과가티가버린다』는 昨年一年中에 百萬部나 팔리어서 아메리카의 總價를 울리기에 이르도록 有名한 歷史小說이엇는데 最近 스산、데부스라는 婦人이 同書의著者 마가레트·미첼女史를 걸어서 版權侵害에 依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하얏다。데뷔스女史의 말로 드르랑이면 그 小說은 自己가 지은『K K의참歷史』를 剽竊한것이라는 것이다。果然 그의말과 가튼지? 米國文壇의 興味中心은 비야흐로 이 訴訟에 노히어 잇다고한다。

新刊紹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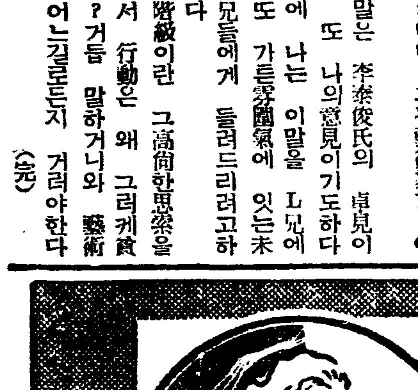
▲法政新聞 第三六九號(九月二回) 發行所 京城府漢江通三丁目一一三 法政新聞社 振替京城一七一五番 定價一部十錢

▲朝鮮醫報 第七卷第二號(年四回)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 세부란스聯合醫學專門學校病理學敎室內 朝鮮醫師協會 振替京城一六八二番 定價五十錢

▲家庭之友 第六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七五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振替京城一〇〇九番 定價五錢

▲週刊大陽 第十二號(週刊)發行所 東京市赤坂區表町三의二四 心交協會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一部五錢

▲朝鮮藥業情報 九月號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八二 朝鮮藥業情報社 定價三十錢



婦人네의 頭痛不快에

ノーシン (노-싱)

머리가띙하고무겁다! 疲困하야精神이업다! 家事裁縫이잘안된다! 讀書가不進한다……고할때아모手苦업시、다만 한첩의ノーシン이 시원하게頭痛不快를一掃하는爽快味를아십니까?

ノーシン의優越한點은 다만 痛症을速히업샐뿐만아니라、同時에頭腦의疲勞를恢復하야朦朧한머리를、明快하게하는 獨特한藥効를갓치 가지고잇는것입니다。게다가常用하면 神經의營養을 조케하고、心臟을强補하는숨은 效果가잇기때문에、每日頭腦를 酷使하는現代人의 必需藥으로好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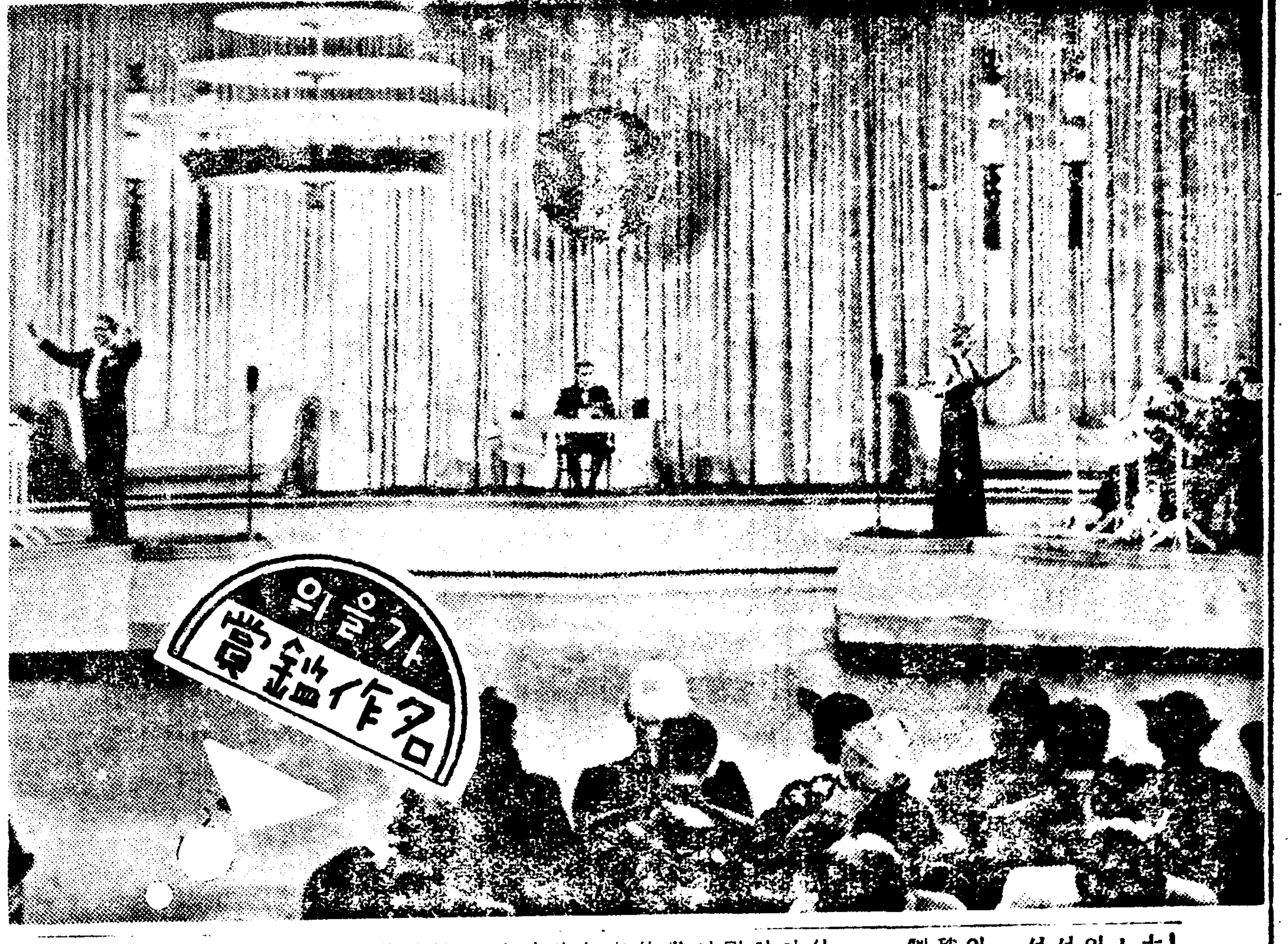
主効 頭痛·頭重 頭腦疲勞·頭內朦朧 上氣·眩氣 船車暈·宿醉

藥價 30 50 1.00 2.00 5.00

全國藥店、百貨店、藥品部에잇습니다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趣味 娛樂



二人의메로듸 (와-너社作品)

怪奇映畵의秘密
製作의重點은스릴 巧妙한트릭도使用
名作들의裏面은어떠한가

質的으로 조흔 映畵는 반드시 그럿치도안치마는 娛樂映畵가되면『스릴』이 반드시 必要한것이다。二十年前에 依行한 西部活劇의『스릴』이라던지 數年前까지도

(全盛)하든 猛獸實寫映畵의『스릴』은어느것이나 大衆의 肝膽을 서늘하게 만든것이다。그럼으로 怪奇映畵는이『스릴』만에 重點을두어 構成한것이라고해도 過言이아니다

怪奇映畵에도 여러가지 種類가잇서 探偵味를 主로한것 冒險味를 主로한것 幽靈이나 독갑이를 主로한것들이잇다 말할것도업시 이러한 怪奇映畵는차라리 넌센스 映畵라고할만큼荒唐無稽의것이만코 知識人을 相對로한것은 全然업다 即 藝術的으로優秀한作品이적으며 大部分이 低級하고 粗雜한 大衆娛樂物이다『아란、포ㅣ』의『앗샤케ㅣ의末裔』가튼것이 第一나은편이고 다른것은 거의볼만한것이 업다고해도 過言이아니다 獨逸의 表現派映畵가 盛히輸入되든때『가리가리博士』가잇서서 그액센트릭한

(畵面) 構成에 魅力이잇섯스나 오늘날와서 생각하면 技術的으로 떠러젓다

映畵의 트릭과 撮影技術은長足의 進步를 가저와서 그옛날 名畵로서 評判이조든『東道』나『落花』가튼것도 現在에는 五分間을 보고견딜수업슬것이다。最近『로케ㅣ숀』이 적어지고『셋트』가 만해진것도 이撮影技術이 發達한 證據이다。

發聲時代의 怪奇映畵

『토ㅣ키』가되여서 怪奇映畵의『스릴』도 一段效果的으로 되엿다『파라마운트』社의『지킬博士와하이드』에서『프레데릭·마ㅣ취』가『지킬博士』로부터『하이드』로變할때의『우우우』하면서부르지즌소리等은 대단이 무서웟든것이다

이作品은 小說로서도 定評이 잇는것이고 또한 그內容이 末梢的인 撮影技術을 壓倒하고評判이 조핫다 그와

(反對)로『메트로』社의 여러 가지『따ㅣ산』映畵는 內容은 荒唐無稽하야 차라리 넌센스에 지나지못하나 그撮影이大規模인것과『트릭』이 巧妙한데따라서『스릴』이 豐富하다 이數年來 怪奇映畵로서 成材한것은『유니버ㅣ살』社이다 죽은『론차니ㅣ』以來의 그로테스크한 俳優의一人者라고 알리워진『보리ㅣ스·카로프』가『스타ㅣ』로서의 여러가지 怪奇映畵에 主演하고잇다『프랑켄·스타인』과『프랑켄·스타인의 新婦』等은 그代表的作品이다。以上의 二作이 모다 創造된 化石人間이活躍하는 映畵로서『카로프』의무서운 扮裝과 늘 카메라를 下向식혀서 陰險한『라이트』의效果를 가저온 撮影이 奏功해서 怪奇映畵로서의 成功을 보게되엿다。『허ㅣ리웃드』의女王『그레타、갈보』가드니는 말하기를『난저런 그로테스크한 사람은 실어요』라고 그본얼골까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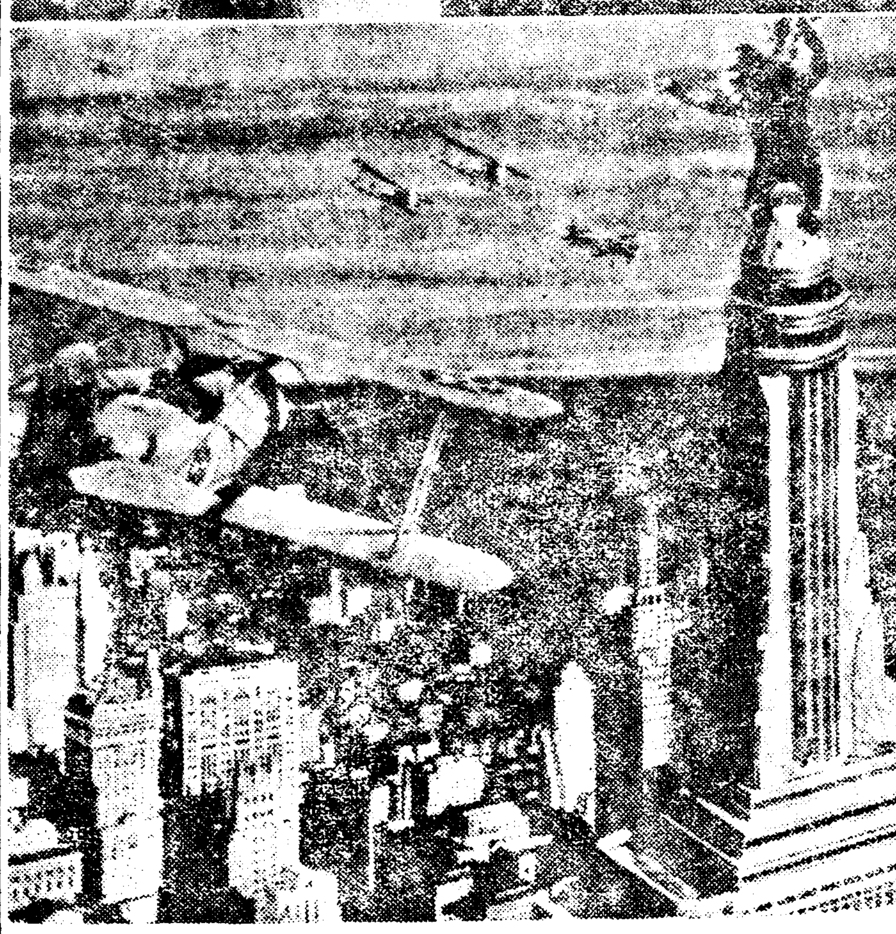
(憎惡)를 느끼고 잇스니 말이업다、이『카로프』의 主演에依한 近作에『밤의鍵』이잇다 怪奇映畵의 俳優로서도 이박게도『베라、르고시ㅣ』『옷트、크루ㅣ가』『라요벨、바리모어ㅣ』等이 여러가지 怪奇映畵에 主演하고잇스나 그무서운맛에 잇서서는 制底히『카로프』를 따라갈수가업다 俳優는 다르나 그가는方法으로서의 成功한사람은 最近에는 佛蘭西『체코』映畵社의『巨人고렘』이잇다

精神分析映畵 와트릭映畵

原作 脚色 表現의方法에依하야 近來斯界의 異彩로서 注目되는것은 今年여름에上映된『로비스』社의『魂을잃은사나희』일것이다 이것은『가리가리博士』『마음의 수수꺽기』以來의 精神分析映畵이며 新興瑞西映畵가더욱이『토ㅣ키』로서 東洋에 紹介된것이라하야 적지안흔 팬의注目을 끄으렷다 怪奇映畵의트릭으로서

(巧妙)한것은 R、K、O의『킹·콩』과유나이텟드社의『透明人間』이다 前者는巨大한 고리라를 生擒하야 뉴ㅣ욕에가지고와서 騷動을 이르킨 前後二篇의 內容에는 어새한것이 만헛다、이映畵가운데서 第一 이상한『트릭』은『킹콩』이 米國最高最大의『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의屋上庭園에 올나가서 襲來하는 飛行機를 擊落식히는場面이다、이場面을 백히는데는 위선 카메라의압헤『엠파이어、빌딩』上半을너흔一景의 寫眞을『燒付』한琉璃板—— 即 幻燈用種板의 大型을 노코 만든것이라고 생각하면된다、그리하야『카메라』로부터 드려다볼때 끈어낸 部分에 꼭드러맛는 位置에『빌딩』의頂上만의

(模型)을 노코 그우에고리라껍질을 덥허씌운 人間이『킹、콩』이되여가지고그 模型우에서서 야단을친다。다시 저편에는 힌幕을치고 그 寫眞으로부터 飛行機가 날너오는 寫眞을 映寫한다、이幕에 비취는 飛行機가 갓가이 올때『킹、콩』은 幕우의 飛行機를 두다려 부신다、、이것만을 前方에 裝置한『카메라』로 撮影하면 幻燈式의 琉璃넘어로『킹、콩』의모양과 飛行機의 映像이 모다 비취여지는것이다、더욱 이러한 三段的 트릭이잇슴에도 不拘하고 천연스럽게 寫眞이 撮影되는것이다 그러면 고리라보담 압해서 크게보히고잇는 飛行機는 대체 엇더한것일까 이것은 아모것도아닌 飛行機模型에지나지안는것이다 이模型을 실로 다라매여서 보이지안는손이 畵面박갓에서 操縱을하는것이다



(사진上은『프랑켄스타인의新婦』下은『킹·콩』의한場面식)

라디오

十三日 (月曜)

◇午後六時 偉人이야기『乃木大將』 沈 宜 麟
◇同六時二五分 (東) 英語講座 (一) 長澤英一郎
◇同七時三〇分 週間常識『時局과支那要人들』 沈 天 風
◇同八時 軍歌工夫『軍艦』 鈴美合唱團 指揮 李 鍾 泰
◇同八時一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어화靑春 二、唱劇調沈奉士皇城을나가는데 吳 太 石 杖鼓 池 龍 九
◇同八時四〇分 獨唱 一、歌劇『椿姬』中에서 이、그이엿든가 베르듸作曲 二、貴여운꼿다발 토스티作曲 三、나는생각노라 토스티作曲 四、오너라、동모야 任東爀作曲 五、지로멘다 任 祥 姬 피아노伴奏 金 메 라
◇同九時 連續講談『乃木將軍』 第一席 庾 秋 岡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城) 落語
◇同六時(東) 日本英傑
◇同六時二五分(城) 副業講座
◇同七時四〇分(東) 講演
◇同八時一〇分(福) 詩吟
◇同八時二〇分(東) 浪花節
◇同九時(東) 琵琶

十四日 (火曜)

◇午後〇時〇五分 (東)管樂六重奏
嬉遊曲 十四番모ㅣ차르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모르트
第二樂章 안 단 티 ㅣ 노
第三樂章 메누엣드모데라ㅣ트
第四樂章 프 레 스 트
第一오ㅣ보에 吉田長次郎
第二오ㅣ보에 新宅 孝
第一바ㅣ존 卯月啓五郎
第二바ㅣ존 太田 憲雄
第一호른 山內 茂
第二호른 馬淵 治
繼續 레코ㅣ드音樂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첫가을의化粧』 吳 淑 根
◇同六時 學窓美談『의조흔 두동무』 朝鮮日報 崔 鎰 善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 古蹟巡禮 北鮮篇 黃 義 敦
◇同七時三〇分 講演 가을의藥草採取 沈 鶴 鎭
◇同八時 軍歌工夫『軍艦』 鈴美合唱團 指導 李 鍾 泰
◇同八時一五分 音律 靈山會相中에서 上靈山 中靈山 잔靈山 가락도도리 朝鮮正樂傳習所員
◇同八時四〇分 流行歌 一、히리진쪽배 金喆麟作曲 二、北國萬里 〃 三、松花江밝은달 林明鎬作曲 四、물새야우지마라 李集英作曲 五、달녀라호로마차 〃 作奏 DK管絃團 道 植
◇同九時 連續講談『乃木將軍』 第二席 庾 秋 岡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 音樂
◇同六時 童話
◇同六時一五分 婦人時間
◇同七時三〇分 講演 (自天津)
◇同八時 演劇
◇同八時三〇分 (東) 祖國

赤玉포ㅣ도와인은아주맛잇고榮養價가만허서大好評인葡萄酒입니다。다만滋强飮料로서만이아니라 每日料理에도應用해주십시요、大端히길거운食事를할수잇습니다、그리고여러분은 더욱더욱健康케됩니다。家庭은얼마나明朗하게되겟습니까

大阪堂ビル割烹學院校長
辻 德光 先生 (案)

(1) 鯵의 赤玉포ㅣ도와인 찜

材料와分量【六人分】生鯵(中)三本·蓮茄筍(小)二本·鹽、胡椒、味の素 各適宜、赤玉포ㅣ와인七勺、파세리ㅣ적은것한단、

調理法 鯵은물에씻서 去頭하고 內臟을 버린뒤 다시깨끗이씻고꽁지가잇는대로셋으로 짤러서 腹骨과各小骨을 빼내고、소곰、胡椒、味の素를처서 數十分두고 다음筍은곳을縱으로 여러개로찟고 뿌리쪽은 菊花와가티벗겨 다시잘게一、二分쯤잘러서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곰、胡椒、味の素에 담거두고 따로구라단접시나 或은 適當한큰접시에 鯵의兩端을욱으려너코 꽁지를펴서 보기조케하고 그압헤筍을 가티담고赤玉포ㅣ도와인을 엽흐로부어서 十五、六分間찐다음 다시 西洋접시에담어잡숩니다

(2) 赤玉포ㅣ드와인 푸라만지

材料와分量 (六人分)赤玉포ㅣ도와인 五勺콘스타ㅣ지五勺、白砂糖十五匁、水一合五勺、牛乳一合、卵白二個分、파우다슈가ㅣ十五匁、파세리조곰

調理法 콘스타ㅣ지가운대 牛乳砂糖물을 合해서잘풀고 물에언저 추석으로저으면서 잘끄려풀보다조곰 굿게되엿슬때 赤玉포ㅣ드와인을치고곳불을끄고 제리型을 물에적시여 그型에담어서 식혀두고 다음卵白을 泡立器로잘 끄려허엿케끌을 적에파우다ㅣ슈가ㅣ를처서 또잘저어서 크림과가치되엿슬때 絞出袋에너어 菓子접시에보기조케 짜내여서 그우에 아까해둔부라만지를담고 군대군대 파세리를끼어서 따로스ㅣ푼과가티드립니다

(3) 夏蜜柑을 맛잇게먹는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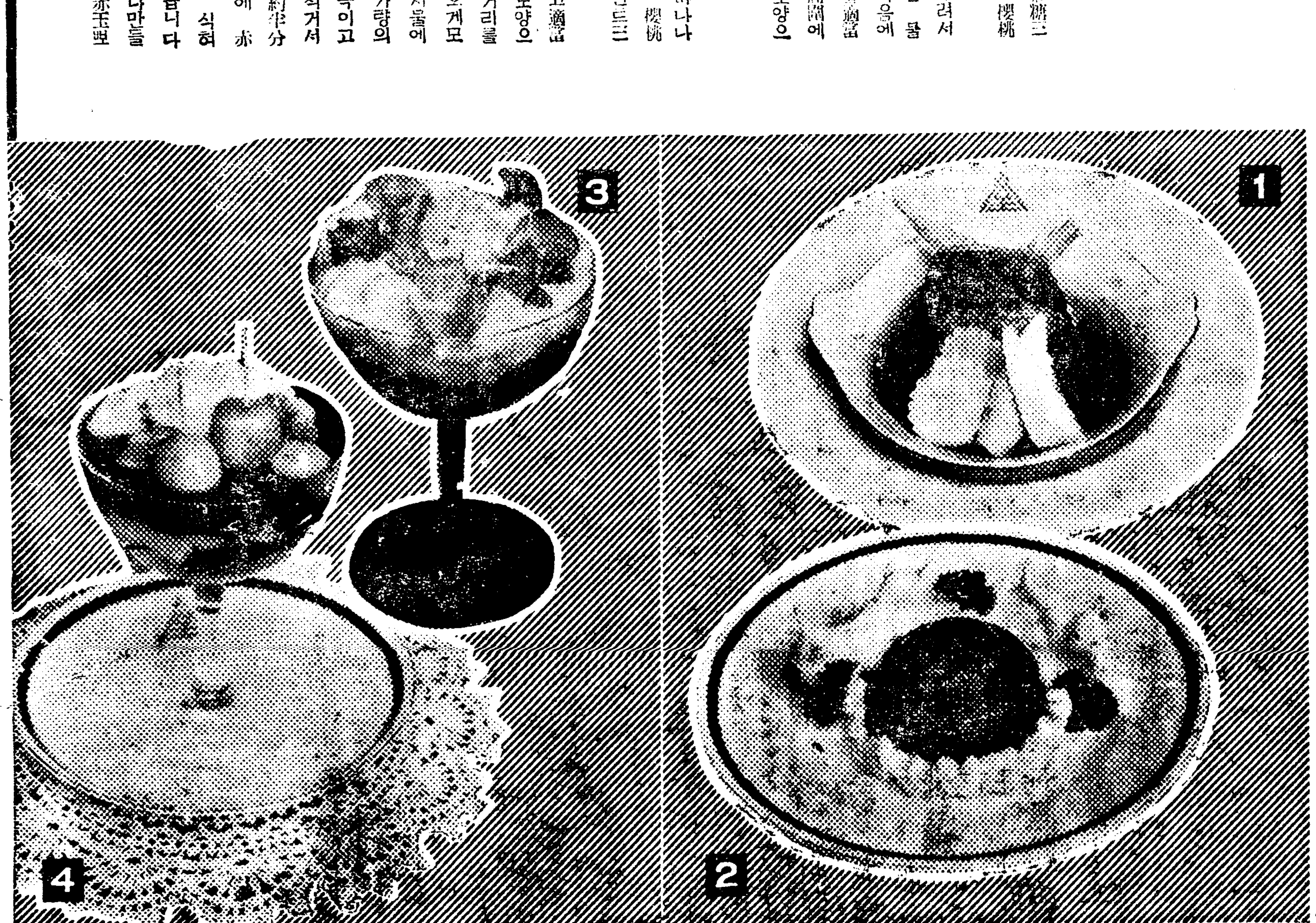
材料와分量 (六人分)夏蜜柑(大)三個·白砂糖二四十匁·赤玉포ㅣ도와인一合·卵白二個分·櫻桃十八個·파세리조곰

調理法、夏蜜柑을까서 砂糖을 充分히 뿌려서잠간두어두엇다가 깊이잇는 유리곱부에 조곰 물룩하게담고 赤玉포ㅣ도와인을 너어서、다음에卵白을充分히거품을 내여서 그中에砂糖을適當히너코서 더잘저은다음 먼저夏蜜柑의 周圍에모양조케너코 군데군데櫻桃씨를빼것을꼿모양으로벗겨서파세리와가티내노읍니다

(4) 후루쓰·칵텔제리ㅣ

材料와分量 (六人分)赤玉포ㅣ도와인五勺바나나三本·林檎一個·枇杷三個·수이메론一個·櫻桃十八個·제라친八枚·白砂糖七十匁·파페ㅣ민트三勺·파세리조곰

調理法 바나나、林檎、枇杷等의껍질을벗기고適當히썰어서合부틀유리곱부에너코、그우에꼿모양으로껍질을벗기고 잘게써른수잇메론 과줄거리를잘라버린 櫻桃를곱부보다 조곰우으로 나오게모양잇게담아노코 다음에제라친을 물에씻고서물에담거軟하게하야 물氣를업새고、二合五勺가량의물과가티남비에 담고작구저으면서 의혀녹이고이것을둘로 노나서한쪽에페파ㅣ민트를 섞거서조곰식힌 뒤에몬저 果實을담은곱부에 約半分을붓고 速히冷固식힌다음 남은제라친에 赤玉포ㅣ도와인을 섞거서 먼저곱부에붓고 식혀굿게한 다음파세리를 조곰식섞거서 먹읍니다그리고 果實은 통조림을쓰면 四季언제나만들수가잇습니다 또 손쉽게하려면제리ㅣ를赤玉포ㅣ도와인으로 만합니다



中部版

計畫進行四年만에 豫定面積을超過
今年은二百萬斤으로比前年三倍增收豫想
江原道에棉花도大豊

【春川】면작증산국책에 의하야 전조선(全朝鮮)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시행중인데 강원도에서도 소화구년부터 증산계획을 수립하고 소화십칠년까지에는 작부면적륙천정보에 달성예정으로 각군에 전문기술원을배치하야 극력장려중인데 계획수립사개년재인 금년에 발서 수립한계획면적을 돌파하야 본년도 작부면적은 륙지면(陸地棉)삼천오백삼십구정구단 재래면(在來棉)이천팔백칠십이정일단 합계 륙천사백칠십정보에 달하얏스며우순풍조(雨順風調)로 대풍작을보게되엿는바 각군당국에서는 공동판매에 준비중인데 그수확예상이백이십만근기량이라하며 작년륙십칠만근에 비하면 약삼배강의 증수를보게되엿다고한다

鐵原에도大豊
比前年三割增收

【鐵原】전조선적으로 경작지만키로유명한 강원도철원의 대평원에는 사십오년만에 처음되는 대풍을 일우엇는데 수확은례년보담 약삼할가량이나늘어서 사십오만석을 넘으리라고 예상하고잇다는바 금년은 특히추수도 례년보다 오일가량빨이시작되여 지난오일부터 철원일대대평원에는 가는곳마다 추수가시작되고 잇다고하며 대부분이 벼의종류는 육우(陸羽)로써 량미(糧米)로는 가장멋도조코하야 물건간 각처로 철원산복이라하야 매출되리라한다

朝鮮軍事後援聯盟 金浦分會役員總會

【金浦】조선군사후원연맹김포분회에서는 지난 구일 오전구시에 김포군청 회의실에서 분회장장영한(張永翰)씨외 사회하에 역원총회를 개최하고 종종후원에대한 여러가지의 타합이잇섯다는데 그사항안은 각종의국방헌금은 군사후원연맹분회에서 취급하기로 결정하고 응소군인의 위문품거출방법과 방공에 대한 감시소의제반시설에 대하야 협의한후 오전십일시에산회하엿다

今年大豊을機會로 舊債整理에奮發
始興郡農振委員會에서

【永登浦】시흥군(始興郡)에서는 비상시국의 농촌에잇서서 생업보국의 책임이 더욱중대함에감하야 농민의정신진작지도의 철저를기하는동시 작년재해로 인하야 방매하여버린 가축품의보충을장려하고 일면 근년에등은 대풍작을기회로 농가에 구채정리를 철저히하고저 십일오후한시부터 군농촌진흥위원회를 열고 구체적협의를 하엿다고한다

華川地主懇談會

【華川】강원도 화천군에서는지난구일 군내토지 십정보이상소유자 일백삼십오명을 군청회의실에 초청하야 오전십시부터리군수통재하에 지주간담회를 조직하고 계속하야 좌기사항을협의한후 오후네시에 산회하엿다

一、소작계약갱신기에관한건
二、자급비료의 통제 시장에관한건 (가)토비장설비 (나)퇴비의통제 (다)녹비 (헤아리ㅡ벤지)의 재배(라)액비통의설치
三、금비시용절제에관한건
四、우량품종의 보급 장려에관한건
五、부업장려에관한건
六、우돈사의 개조에관한건
七、가축사료의건

伊川重大懸案을 道知事에게促進陳情
初巡視의機會에地方代表가

【伊川】강원도지사 김시권(金時權)씨는 금번부임이후 처음으로 이천군에 순시하게되야 지난십일오후륙시 도청자동차로 이천읍내에 도착하야 회산려관에투숙하고 십일일철원으로 향하엿다는데 도지사의 래이한기회를 리용하야 읍내에서는 공직자들이 도회의원송규환(宋奎煥)씨를 대표로 이천군내에서 제일긴급한 당면문제의 사개조를 진정하엿스며 산내면 송정리(山內面松亭里)에서는 리민대표를이천읍내에 파견하야 송정리압교량가설을 진정한바 금번이천읍내에서 진정한바는 매년녀름이면 온내주민의 사활문제가되는 하수구(下水溝)시설촉진과군내 산업경제교통상 제일중요한 고성진(古城津)교량가설에 대한 것과 이천군방장면갈산온천(葛山溫泉)간 도로의 계수공사촉진과 판교(板橋)락양(樂陽)간등의로 난공사비용 보조의건이라는데 금번진정한 조건으로 군내에서 당면된 중요한중에한안으로 진정의결과기 자못 기대된다고한다

(上은)千餘名聽衆을 感激케한 時局講演會 (下)는聯合靑年團의發大會式

一萬三千圓獻金
江華郡民의熱誠

【江華】강화군내에서 십일현재까지 제일차모집을 마음한박국방의회금『비행협회비』『군사후원회비』『국방헌금』등은 일만삼천원에 달하엿다 그리고 그중 순전한 국방헌금만본대도 강화국방의회의 팔백원과 홍재룡(洪在龍)씨의 오백원을 필두로 모다 팔천삼백삼십일원사전이 모이고 군사후원사업회비만도 일천삼백원이 모이엿다한다

竊盜四犯者도送局

【楊州】경성부 삼판통(京城府三坂通)에사는 리점석(李點石)(三〇)은 절도(竊盜)전과사범으로 대정십오년이래 약십여년에절도사범을 범행하야 칠년이상이나 징역을하고 출옥한지 불과이주일이못되여 경성삼판통원등길랑(遠藤吉郎)의 자전거를 절취하야 팔라다가 양주서원에게 체포취조중 십일일검사국으로송국되엿다

鑛山開發原動力 寧越發電所竣功・
三陟、寧越의炭田을中心으로
一萬五千키로送電開始

【春川】약진강원도의 중심세력이요 조선전력(朝鮮電力)의초점인 녕월발전소(寧越發電所)는강원도지하재원개발의 모태(母胎)가되며 녕월(寧越)삼척(三陟)량탄광에 원동력이 될터인데 그간공사도 임이끗나고 시운전도 호성적을 나타내엿슴으로 불일간일만오천키로의 송전을 단행하게되엿슴으로 서광비친강원도전도유망하다고한다

楊州時局講演盛況

【楊州】시국인식을 철저히 보급시키고저 군당국에서 남궁사회주사(南宮社會主事)를 각면에 파견하야 강연중이라는데 지난십일일 시둔면(柴芚面)에서는양주군회의실에서 강연을 하얏는데 수백의청중으로 대성황을이루엇다 ... 강연하야출연자는 다음과가튼 열두분이라한다

張錫元 張弘植 梁在昶 中村健太郞 元應常 玄檣 高永均 黃術模 安鍾哲 金麟顯 申昇均 黃宗錫

畜豚盜賊被捉

【水原】지난팔일 수원장날수원경찰서신 리랑형사가 시장을순회하다가 가축시장에서 이십세된청년이 하도당황하게 굴무로 수상하게 생각하고 본서로동행하야 심문한즉 이자는 수원군안룡면고삭리 최기호(水原郡安龍面古索里三三四六(崔基浩)(二二)로서 지난팔월이십오일 오후일시경 룡산여공동변소 압헤서(京)사칠사오오호 자전거일대를 절취하야가지고 이래시흥 수원진위각군 촌가에왕래하면서 도야지를 절취하여다가 각시장에서 매각하얏다는데 체포되는날도도야지세머리를 장에팔녀왓다가체포된것이라하며 방금계속 취조중이며 도야지만 절취한것이상당히만흘듯하다한다

江華邑의兩大會合

【江華】제이차시국인식대강연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십일일오후한점부터 강화공보교 강당에서 개최하얏는데 청중은 천여명에 달하는 성황을 이루엇고 시간이되자 강화군수 박제승(朴齊昇)씨가 등단하야 연사의 소개를겸한 개회사가잇섯고 마장군중의 박수를바드며 본사사장 방응모(方應謨)씨가 등단하야『日支關係와帝國』이란 연제로 한시간반의열변이 잇슨후 이어서 박연서(朴淵瑞)목사의『時局再認識』이란 연제로 일반의 시국인식을 새롭게한다음 동세시사십분 무사히 폐회하얏다

【江華】전강화를 통하야 수만흔 청년단은 아직것 개별적으로 조직이 되여잇슬뿐 한등의 체계를 세워서지도적 입장에 선 기관이 업서 늘 유감으로 생각하야오던바 지난십일일오후 네시 강화공보교강당안에서 이들세포단체의 대표자들을 모으로 강화연합청년단(江華聯合靑年團)을 조직코단장에는 박제승(朴齊昇)씨를 추천하얏스며 래빈대표 류병가(柳秉佳)씨의 축사가 잇슨후 동황리에 발회식을 맛치엿다

스리에게現金奪取

【蘇萊】부천군소래면 뱀내장(富川郡蘇萊面蛇川市)은 부천군내상대우시장중에 제일일뿐 아니라 역사가 깁픈 우시장으로서 경향각지에서 모히는군중은 무려수천명이라는데 현하비상시국에잇서서 경계를엄중히하는 경관의눈을 피하야 백주에 늙은촌사람의 소사려온돈을 스리가가져간일이잇다 지세한내용을듯건데 소사면고척리(素砂面高尺里)사는 로인이 지난십일 뱀내장에 소사려 왓다가 현금 일백십원을 일코 소관소래경찰에 호소하엿슴으로 동주재소에서는 범인수사에 맹활동중이라한다

供川서三千圓獻金
愛國機江原號基金

지나사변이 각각으로 중대화하는요지음 홍천군에서는 자진하야 국방헌금과 황군위문금품을 헌납하는 현상이라하며 애국기강원호(愛國機江原號)기금도 륙속답지하야 지난십일 현재로 홍천군에 접수액이 이천구백십오원확십이 전에달하얏다한다

洪川巡回時局講演

【洪川】강원 도의원대총원칠(大塚源七)씨는 지난오일부터 십이일까지 약일주일간에 홍천각면을순회하야 군민으로하여금 시국인식을 주지철저키위하야 홍천군 조도원씨를 동반하고 방금순회강연중으로 군민들은 더대한기대를가지고잇다한다

危機一髮에救生
"츠럭"과小兒衝突
洪川郡上吾安里에서

【洪川】지난십일 열두시에 홍천(洪川)을 출발하야 경성을향하는 강(江)제오오이호뻐쓰가압길을 횡단하는 유아와 충돌이충돌하야 위기일발에서 생명은 구원한 사고가잇다 그자세한바를 탐지한바에 의하면 운전수는 홍천군 홍천면 신장대리 필번지(洪川郡洪川面新場垈里)의 황치명(黃致明)(二〇)으로 경춘철도회사뻐ㅡ쓰강(江)오오이호를 동일정각에 출발하야 경성을향하야가는중 홍천읍에서 이리가량되는 남면상오안리(南面上吾安里)실가에서 때마츰 추럭에장작을실고 구경을하는 남면상오안리(南面上吾安里)오십번지 강룡학(康龍學)의이남천기(천기)라는소아가 별안간뻐ㅡ쓰의 압흘횡단하엿다는바 운전수는대경실색하야 직시정거하엿스므로생명에는 관계업스나 출혈로인하야 홍천공의에 약이주일가량치료를요하는경상을입엇다하며 전기운전수는 전춘천(前春川)의(春川自動車會社)때부터 지금에이르기까지 십륙년이라는 장시일을꾸준히 종업하여오든운전수로 금번비로소 사고를내게되엿것이라한다

婦人講演會開催
同民會主催로

경성부화천정(和泉町)에잇는동민회(同民會)에서는『시국인식은 부인으로부터』라는 취지미테지난팔일부터 십오일까지 일주일동안 부내 이십팔교에서 부인강연회를개최하고 시국에대한부인네들의 인식을 새삼스럽게하고잇는중이라는데 십사일부터는 어의동 매동 창신 혜화 각보통학교에서 강연회가잇고 십오일부터는 청운 은로 한강 리태원 서빙고 동각학교에서 강연회가잇스리라하며 이에출석하

戰死者遺族弔問
甘蔗知事와神谷部長
日曜日마다京城市內에서

감자(甘蔗)경기도지사와 신곡(神谷)내무부장은 일요일마다부내에거주하는 전사자의유족을진히조문하는터인데 십이일신곡내무부장은 부내효자정(孝子町)길십륙번지 고삼각홍(三角弘)씨유족을비롯하야 명치정(明治町)이정목조일(朝日)려관내 택전정(澤田正)씨유족 원정(元町)이정목고상전칠랑(上田七郎)씨유족을 각각조문한후 도청직원중의 응소군인가족엽집을 위문하엿다한다

蘇萊面民國防獻金

【蘇萊】부천군소래면 (富川郡蘇萊面)의 국방열은 날로고조되여 지난구일까지 소래주재소에 기탁한 씨명과 금액은 다음과갓다

茂芝基督敎會員一同四圓也 茂芝講習所職員及生徒一同 六圓 浦里面里民一同二十三圓也

處罰六、說諭五九 檢擧取調만十件
江原道에流言蜚語百十一件

【春川】지나사변이 점점확대됨을따아 일반은 더욱긴장하여잇는이때 근거도업는 류언비어(流言蜚語)를 류포식히여 일반민심을 흥흥케하는자가 각지에 속출하는바 강원도경찰부 (江原道警察部)에서는 사건발생당시부터 이점에대하야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중인데 지난십일일현재로도내각서에서 류언비어(流言蜚語)관계로 처분된사건이 다음과갓다고한다

▲處罰 六件▲說諭 五九件▲檢擧取調 一〇件▲其他出處不明搜査中 三六件▲合計 一一一件

앞으로 시국의전개에딸아 더욱엄중이취체할모양이니 일반은 언사(言辭)에대하야 극히주의할 필요가잇다고한다

壓殺暗葬으로 惡母罪狀判明

【伊川】기보=강원도이천군판교면군지리(伊川郡板橋面君芝里)십삼지(沈相鎬)의처 김성녀(金姓女)(三〇)가 자기와 사랑하는 아들 영섭(永燮)(二)이를 죽여서 바위틈에 무더바린 사실은 기보한바어니와 이천경찰서에서는 곳범인을 검거하는동시 이천서 사법계 김부장과 김형사가범행현장에 달려가서 실지검증을 하는동시 죽인아해의 시체까지 찻고 지난십일 이천공의 김형배(金炯培)씨를 대동하고 사법계 김부장이 현장에 달려가서 운부를하엿다는데 보는사람으로하여금 악착스러워서 어린아이를 죽인현장은 차마보기 어려웟다하며 김성녀는 죽인동기를 무를지라도 자세한답변을 못하고 잇다는데 이외기티 악착스러운 어미는 처음보는일로 죽은영섭이가 전남편의 아들인것을 비관하고 죽인것이 아닌가 한다고하며 김성녀는 전과를 뉘우침인지 눈물만흘리고잇다한다

花冠【48】
=長篇小說=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생각만혼가을(一)

이런 배일현의 편지는 패동옥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노앗다. 멧번 가슴을 떠며 숨을 드리켜보앗스나 기슴에 공기가 차는것으로서는 마음이 시원해지지 안는다.

『서울 갓스면!』

시퍼진다. 동무 생각이 난다. 그러나 여러 동무들을 생각나는대로 다 눈아페 그려보니한 사람도 이런경우에의 견줌 물을만한 사람은업다. 배인철이가튼 사람이 여자랫스면 시퍼진다. 여자랫스면 사귀정은 오래지안치만녀히 차저갈수 잇고, 차저가서는 서슴틸것업시 이런청우를문답하여보고십다.

날조차 구질구질 비가 나리기 시작한다. 동옥은 우선 정히에게 편지를 썻다. 잘 놉다가잘 왓다는 인사뿐으로 배일현의이야기는 빼엿다. 그리고 황재하에게도 한번쯤은 인사의 편지가 업슬수업서 붓을들엇다. 간단한 안부와 간단한인사로 물에서 구조되엿든것을 감사햇슬뿐이다.

동옥은 정히에게 인사뿐이편지를 부치고 나서는 더욱괴로워진다.

『배일현의 행동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지 안을가? 정히로도 무슨 대책이 잇슬수잇다면 때가 지나기 전에 일어야 하지 안흘가?』

그러나 만일 배일현이가 일시 흥분된 기분이 가라안저서 다시 정히에게 돌아간다면 역시 정히는 영원히 이런 사실은 아지 못하는채 지내는것이 그를 위해 행복일것 가텃다.

『그리다가 정히가 저절로 배일현의 행동을 눈치채인다면? 더구나 상대자가 나라는 것을? 그럼 제 약혼자를내가 따내인줄로나 오해하지안을가?』

동옥은 어찌해야 조흘지 막막할뿐이다.

다음날도 구질구질 비가 나린다.

『어머니!』

『왜?』

『인전 집으로 올라가십시 다그만…』

『서울은 아직 더울텐데 그리니?』

『그래두…비만 오구 갑갑해어듸 견듸겟수?』

『그러기루 기껏 잇다 비를맛구 뭘허 떠나니? 시원한데어서 메칠 더 잇자 너두 좀 쉬렴…인제 메칠잇서 또 날마다 학교다니노라고 고필텐데…』

동옥은 어머니를 위해 잠작고 더 메칠을 지내기로하엿다.

구름은 산속이 좁아서 빠지지 못하는듯 날마다 내여다보아야 한모양이다.

『산들도 이런때는 지금 내속처럼 갑갑하려니!』

해보앗다. 정히에게서 편지가올듯한데 그냥 메칠이나 지니간다. 배일현에게서도 아무편지도 다시는 업다.

『배일현이가 마음을 돌렷나보다! 정히에게로 갓나보다! 저도 사람이지…』

동옥은 그저 한편 안도하면서도 이러케 해석하려 노력한다.

『정히에게 이번일을 알리지안킬 잘햇지!』

그러나 내일쯤은 날이 아주 개일듯한 아침이다. 그래 내일이나 모레쯤은 상경을 떠나려는날 아침이다. 정히에게서 편지가왓다. 첫머리부터

『이러한 편지라도 네에게 쓰는 내가 더욱 어리석은년일지 모르겟다 그러나 너에게겔코 하소연은 아니다』

하는 말이 나온다. 동옥은 가슴이 철렁해진다.

『내가 배일현에게 속은것은아모것도 아니다. 내가 그를안지는 얼마 안되기 때문이다 내가 분한것은 네게 속은것이다. 나는 중학때의 너만으로 아럿섯다. 그새 너는 그다지도 악독해젓단말이냐? 우리여자들에게만 독부라는 이름이 잇는것은 아마 너가튼 간특한 계집년이 잇기때문인가보다. 그래 세상에 배일현이밧게 남자가 업더냐? 또나를 속이지안코는 그를 가저갈만한 용기도 업더냐? 어쩌면 사람의 가죽을쓰고 고러케 아모일도 업는체하고 문안편지만 하니? 아! 나는 소름이 끼친다. 너가튼 독사의 무리가 얼른 아라보지 못하게 사람탈을 쓰고 우리 주위를 기여댕기는것은 얼마나 무서운일이냐?……』

동옥은 정말 독사나 되는것처럼 얼굴이 새파라케질리고한다

옷감 高級綢緞 옷감
韓靑商會
京城府桂洞町 電光一三九九番
本社京販 電(本)一五九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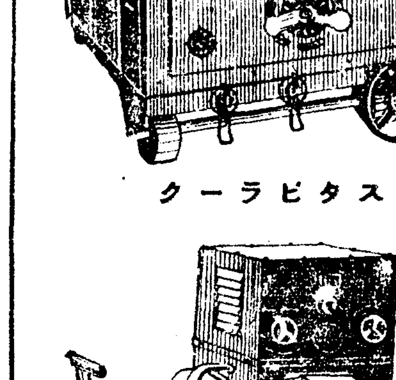
女性 九月號發賣中
定價 二十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

淋疾 排菌早期療法
淋菌은膀胱腎臟의深部에潛在하기때문에局所的療法으로는到底히治療의目的을達키困難하오나 最新製劑ゴノラミン은淋菌巢의深部에까지早期療法을完全히內服으로서達하게되므로 化學的으로證明된反應完治할수잇는것이오니 一次試用하시고 苦惱를버서나기바라나이다
三百粒入 二圓〇〇 百五十粒入 一圓〇〇
京城府本町二丁目 發賣元 株式會社 阿部藥房 電本局(2)四八七番 二四二六番 振替京城二七九一番
製藥元 大阪 ゴノラミン製藥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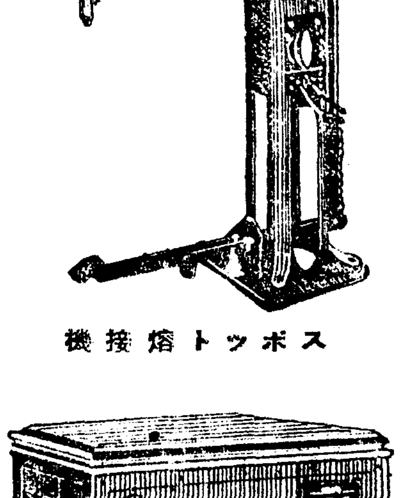
清腸補腎丸
性器强大藥
中國名藥清腸補腎丸은中國古來로有名한性器有弊의百發百中의特效藥으로男子性器... 一個月分三圓 半個月分一圓五十錢 (先金送料負擔)
滿洲國安東縣財神廟街八〇 東亞公司藥品部 旭僑局第十七號

ツヨール
쯔요ㅡ루
陸軍藥局方收載
淋病內服新藥
製造元 東京日本橋・ネオ製藥合資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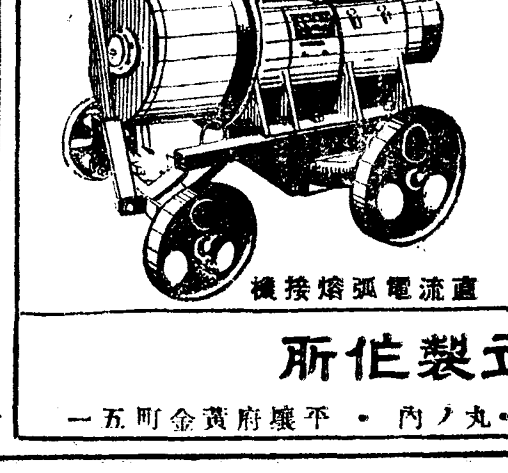
日立電氣熔接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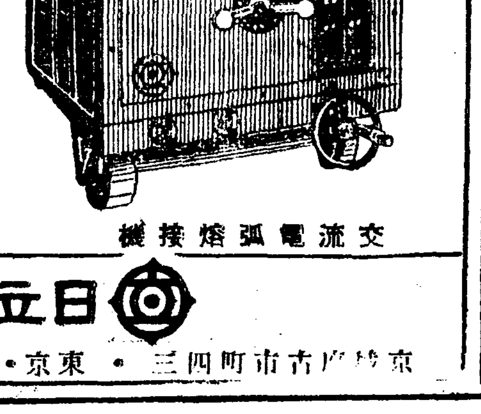
クーラピタス



スポット熔接機



直流電弧熔接機



交流電弧熔接機

日立製作所 東京・丸ノ內 ・ 平壤府黃金町一五 ・ 京城府古市町三四

オリザニン
ビタミンBの始祖
鈴木博士帝國學士院受賞の發明品

(1) オリザニン은 脚氣의原因除去藥으로서 二治効並豫防効力의 顯著確實함은 多數實驗報文이立證하는바입니다。
(2) オリザニン은 脚氣의重症及中等症에는、普通服用量의一倍半쯤의 量을數日間連服함이推奬되며 內服不能又는衝心等의危險期에際하야는注射劑가適用되야、治効가나타남에따라普通藥用量或은그以下로減量해서 全快까지連用하는것이常法입니다。
(3) 脚氣의豫防에는 普通藥用量의 半量을連用해서 目的을達할수잇슴이일여저잇습니다。

內服用 (비타민B複合體)錠、末、液、엑기스、各種
注射用 (純비타민B結晶製品)普通品、三倍品、五倍品、十倍品、廿倍品及四十倍品各種잇슴

오리자닌은 脚氣以外 各種의 醫治效用이有함
(詳細는說明書에잇슴 申込次第進呈)

製造發賣元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桃花劇場 電(龍)一三三三番
◇九月十三日부터特別大公開!! 每日晝夜二回上映낫一時밤七時十五分始映 特別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待望의大名譯封切)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新條式總天然色映畵!! 踊る海賊 全十卷 監督…로이트고리찬氏 美術監督…로바ㅡ도에드몬드 존즈作品 主演(스페워쥬ㅡ나 잘쓰코리앙)
◇PCL超特作全發聲日本版!! 現代名篇 男は度胸 全七卷 監督…渡邊那男氏 主演(岡讓二 提眞佐子)

新富座 京城新堂町(電本)五六七七番
◇九月十三日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 낫十二時부터六時까지 밤七時十五分始映 大衆料金階上廿錢階下十錢均一 (二大傑作品封切)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잇지엘라이센監督作品 主演…(푸레데릭마ㅡ치 이바린째나물)
◇マキノ超特作全發聲映畵!! 時代劇 八州俠客陣 監督…マキノ正博 主演…(澤村國太郞 原駒子)

戰時經濟體制整備 ⑧

資金戰時動員
目標는 物의 調節

藏相의 說明演說

資金調整法의 公的意味는 臨時議會에서 賀屋藏相의 演說에 依하야 表明되엇다

「軍의 需要及 國防에 關係잇는 產業等 此際에 特히 必要한 方面에 對하야 그 必要한 物資와 資金과 勞力과를 될수잇는 限度로 潤히 供給할것을 中心으로 諸般의 方策을 講究할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爲하야 積極的으로 이러한 方面에 資金의 流通을 圖하야서 이 方面에 對하야 物資、勞力等을 集注하는 同時에 他面 資金、物資、勞力等에는 限度가 잇슴으로 此際에 比較的 不急한 事業의 新設、擴張等을 暫時 避하는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關係로 政府는 本議會에 資金調整에 關한 法律案을 提出하고 會社의 新設、增資及 金融機關의 社債引受資金의 貸付等에 對하야 有利適切한 調節을 行하는 同時에 時局에 當面하야 必要로하는 事業에 對한 資金의 疏通을 行하기 爲하야 日本興業銀行으로하여금 必要한 資金의 融通을 시키고저 興業債券發行限度의 擴張其他의 措置를 取하기로 되엿다」

巨額의 物資消耗

目下時局은 軍需關係의 生產力擴充을 必要로하는 戰爭準備時代와 直接으로 巨額의 物資를 消耗하는 戰爭時代가 一時에 追來한것이다 戰爭이 直接으로 消耗하는 物資를 供給하기 爲하야 生產擴充을 犧牲하는 것은 許치안는다 物資는 이두方面으로 大大的으로 需要된다 物資의 需要와 消費가 全面的으로 無反省하게 行하여지면 當然物의 顯著한 不足을 招來하며 物의 不足과 反對로 通貨는 政府의 膨大한 軍費支出에 依하야 增加됨으로 이 돈과 物과의 相對的關係는 이에 惡性「인풀레」를 招來하야 物價를 騰貴식히며 國民의 經濟生活을 破壞한다 그러타고 物의 不足을 補充하기 爲하야 輸入을 無條件으로 行하면 國際收支關係를 惡化하야 惡結果를 齎來할것은 同樣이다 이를 防止함에는 直接軍需上及軍需關係의 生產力擴充上、比較的 不必要한物의 消費를 되도록 節約하는 外에는 업다 이는 國民生活의 低下、國民의 文化的慾望의 犧牲에 依하야 行하여진다 이는 平時라면 不合理한일일것이나 이 非常時에는 할수업는 일이다 戰爭에 關하는 兵士를 생각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참지안호면안 되된다

法이 가진 두方面

資金調整法은 이 意味에서 必要한 物의 生產促進과 不必要한 物의 生產制限과 二面의 目的을 가진 非常時立法이다 此種立法은 今回 日本이 先驅가 된 것은 아니다 同樣의 趣旨의 立法이 歐洲大戰當時 英國其他에서 行하엿다 그리고 그 目的은 生產擴充의 面보다도 生產制限의 面에 向하엿든것이다 日本의 資金調整法도 처음에는 生產擴充의 面이 더 强하게 印象을 주엇스나 그 本來의 要旨는 그보다도 만흔 生產制限 消費節約의 面에 잇다고 보지 안호면안된다 如何든 이를은 資金調整法이나 目標는 物에 잇는것이오 돈에 잇는것은 아니다 무릇 戰時經濟立法의 가르치는 곳은 物의 調整에 잇는 것이다。物의 調整을 行하는 한가지 手段으로 資金調整法은 生產會社에 對한 生產資金의 供給을 調整함으로써 돈 方面으로부터 物의 生產을 或은 促進하고 或은 制限하는 機能을 가진다 그러므로 資金調整法의 構成은 돈을 쓰는 事業會社와 그 돈을 供給하는 金融機關과의 兩者를 統制하지 안호면안된다 必要한 物을 生產하는 事業에 對한 資金의 供給을 潤滑히 하며 便利하게 하는 一方 不必要한 物에 關係하는 事業에는 돈의 供給을 拘束하는것이다 그리고 勿論 이에 資金이라는 것은 生產設備用資金 即所謂固定資金으로서 流動資金은 이에 包含되지 안는다

法의 運用과 執行

實際上 어떠한 方法으로 資金調整을 行하느냐하면 同法案이 示하는데 依하면 다음과갓다 于先官民兩者(官吏兩院議員 金融業者代表 產業界代表等)로 組織되는 臨時資金調停委員會(朝鮮은未定)를 만드러서 여기서 會社의 設立 合併 增資 目的變更 拂込 設備擴張에 對한 金融機關證券業者의 融資社債引受의 境遇에 어느事業은 조타 어느事業은 認可 許可를 要한다는 緊急 不急事業의 決定 그리고 認可 許可를 要하는 境遇의 金額은 얼마以上에 限한다는 決定을 行하야 日本銀行이 許可에 關한 事務를 取扱하고 特히 重要한것에 對하야는 臨時資金審查委員會(主로 日本銀行關係로된)에 附議한다 (이것도 朝鮮은未定) 그리고 이 許可 認可는 實際上事業會社(그것도 不急事業에 組入한것)에 對하야 行하며 金融機關에 對하야는 一一히 이를하지안코 自治的調整에 依하야 自主的으로 行하게 하얏다

以上은 消極的方面인데 積極的方面으로서 興業債券發行 特定限度의 倍加와 政府保證 增資와 會社의 拂込滿額前의 增資를 許하게 되는데 資金調整法의 第一義的目的으로보아 이 積極的方面은 付屬的印象이 잇는바 이것이 資金調整法의 骨子이다 —(게속)—

今年米穀資金 最少一億圓必要
農林當局準備에 努力中

今年의 米作은 第一回調查 一千九百萬石의 最高記錄을 지은 昭和五年以上의 豐作이라하야 二千五百萬石以上의 收穫豫想說이 大流行하고잇는 此際에 當局에서는 米價維持策으로 米穀資金의 充當에 萬全을 期하고잇다 即最近은 事變關係도 影響하여 一般的으로 物價가 昂騰한때다 米價도 어느程度까지는 高位置에 處하게될것이라고는 하나 元體豐作한 農村에서는 收穫後 大部分賣出하는것이 常例이라 單純한國內消費에 끄치는 米穀事情으로보아서는 收穫後 米穀資金의 融通이 圓滑치못하게된다면 市勢의 低落을 免치못할것이라하야 農林當局에서는 特히 米穀資金의 準備에 關하야 金融當局과 크게 努力하고잇는데 山地理財課長이 渡東한것도 이때문이다 當局의 腹案으로서는 昨年이 八千萬圓이엇슴으로 今年과가튼 大豐을 考慮한다면 적어도 一億數千萬圓이 必要할것이나 最少限度로 一億圓의 準備는 必要하다는것이다 그中三千萬圓의 預金部融資는 大略落着되엿스나 그餘의 銀行의 自己資金調達이 問題로되여잇다 그 方案으로서는 亦是 鮮銀券增發을 爲한 正貨準備(日銀券)와 限外發行의 限度如何에 잇는터로 中央諸當局과의 折衝이 注目되고잇다

米穀研究會懇談

朝鮮米研究會는 十五日午後五時부터 銀行集會所에서 例會를 開하고 朝鮮軍經理部員의 出席을 求하야 事變과 朝鮮米에 關하야 隔意업는 懇談을 하기로 되엇는데 當日은 問題가되는 米穀金融問題、朝鮮米輸送問題等에 關하야서도 懇談하리라한다

朝鮮도 應召者에 政府米拂下

總督府에서는 內地에 順應하야 應召者에게 對한 八年產米의 拂下를 實施키로 決定하고 目下 그具體的方法에 對하야 農林省과 協議中인데 朝鮮에서는 都會地를 中心으로 應召者를 出한 關係上 그配給은 比較的容易하다고보고잇다 配給은 府或은農會를 通하야 實施할지 그것은 未定이나 鐵道運賃은 五割引이라한다

資金調整法施行으로 도리어 金融緩和?
지금이 最惡의 情勢

朝鮮內의 金融은 目下依然한 資金難과 資金調整法을 압두고 前途難測으로 金融梗塞을 繼續하고잇는데 資金調整法이 施行되면 도리어 金融은 緩和되리라고 期待된다 即

一、不急、不要事業에 對한 當座申込이 一切中絕된다

一、貸出回收가 着着進行되어 各機關에 餘力이 생긴다

一、米資金其他의 內地資金의 流入이 期待된다

一、貸出方面은 自然限定됨으로 短期金融에는 餘力을 生한다

는 等으로 目下情勢가 最惡이오 今後는 緩和가 期待된다한다

再檢討의 運命
資金調整法二十日施行 拂込徵收豫定會社

臨時資金調整法은 朝鮮에서도 來二十日施行될터인데 右調整法에 依하야 會社의 拂込徵收豫定의 것中에 이미 重役會의 決議를 得하야 株主에게 拂込通知를 發하고 拂込期日이 本月二十日以降으로되는것의 認可는 자못 注目된다 右와 如한것도 一應調整法의 適用에 依하야 再檢討를 하게되리라는데 即 拂込徵收豫定의 것은

一、朝鮮無煙炭의 十二圓五十錢、朝鮮麥酒七圓五十錢、證券金融十二圓五十錢 以上十月一日拂込

一、朝鮮織物 二十五圓 十月六日

一、朝鮮鑛業開發 二十五圓 十一月一日

等이 잇서 其中朝鮮麥酒、朝鮮織物、證券金融의 拂込과 如한것은 가장 憂慮된다한다

產金會社案 當局은否定

產金增產計畫遂行에 當할 一大產金會社創立案이 傳하는데 對하야 石田鑛山課長은 如左히 말한다

產金會社는커녕 그前에 所要資金을 어떠케할가가 問題로 中央에도 여러가지로 생각해달라하엿다 萬事는 그것이 決定된後의 일이다 全然會社案을 생각치안는旨를 言明하얏다

產金資金은 當初二億七千五百萬圓으로 豫定되엇스나 果然 그만큼가지고 充分할지 融資를 如何히할지 中央과 總督府間에서 考慮中이다

朝鮮八年度產米 十八萬石拂下?

政府는 昭和八年度產米의 買上에 依한 七十萬石拂下를 決定하얏는데 右七十萬石中 所有朝鮮米를 어느程度拂下할지 米界에서 注目코잇다 即八年度朝鮮產米는 現在十八萬石을 남기고 잇슴으로 此際一擧로 全部拂下할지 或은 一部를 拂下하고 남어지를 第二回買上에 依하야 拂下할지 二途中一途를 選擇케될 것인바 本年은 未曾有의 豐作이 豫想되고 新米의 買上에 依한 買上은 相當量에 達할것도 容易히 想像됨으로 或은 殘存所持米는 八年產米에 限하야 全部一擧에 拂下할것이라고도 보고잇다

簡保資金의 重要性加重
水產資金一部도融資

殖銀의 金融難에 依하야 恒例의 水產資金一部는 簡保資金의 還元融資가 內定되엇는데 이것은 朝鮮內 金融界에 對하야 激增되는 簡保資金이 有力한 一資金源의 地位를 確保코잇는것이라하야 注目된다 同資金의 貸出은 昭和七年에서 作된것인데 其後의 簡保事業의 伸張에 依하야 貸出餘力은 幾何級數的으로 增加되고 現在自作農創定 金融債券引受等의 資金資源이 되엇스며 今後更히 重要性을 加重케되리라한다

龍山工作增資 一千萬圓으로

龍山工作所는 既報와가티 十四日 臨時總會를 開하고 變體增資를 決行키로되엿는데 增資株式에 對한 金融은 殖銀과 商銀으로부터 生產力擴充資金은 必要에 應하야 鮮銀에서 融資키로 內定하얏다 그리고 京城에서 證券團의 손으로 五千

財界各部門代表組織 時局研究會
十七日發會對策講究

京城財界各部門代表者를 一丸으로한 時局研究會는 十七日午後四時 朝鮮호텔에서 大野政務總監 小磯軍司令官其他臨席下에 發會式을 擧行할터인데 會員은 全部七十四名으로 그目的은

一、研究會開催 二、講演會開催 三、팜푸렛트刊行 其他로 要컨대 財界의 諸問題에 對한 對策을 講究하고 進하야 實行에 移하리라한다

天津物資豐富
陸山朝貿理事報告

過般天津에 派遣된 朝鮮貿易協會陸山常務理事로부터 天津地方의 經濟狀態에 對하야 如左한 第一報가 왓다

天津租界內는 全히 治安이 維持되엇고 諸機關의 强化에 依하야 邦人은 事變前의 約三倍에 達하얏다 同方面의 必需品은 現大連으로부터 入荷하고잇고 豫想外로 拂底치안엇다 支那人과의 交易은 依然 杜絕되어잇스나 近間再開될모양이다 我國으로부터의 物資는 塘沽의 陸揚이 困難하고 天津까지 遡航할 必要가 잇다 그러나 關稅는 依然徵收되나 書面 通關手續程度로조코 冀東經由의 物資는 從來와갓다 天津의 物價는 一割高로 銀은 目下圓보다七圓高이다

西鮮中央鐵道進捗

朝鮮無煙炭의 輸送鐵道로서 計畫中인 西鮮中央鐵道會社는 設立準備를 急히하고잇는바 資本金은 一千五百萬圓으로 朝鮮無煙、三菱이 各其三分一을 持株하고 남어지 三分一은 三井其他緣故者가 配定持株키로되엿다 右會社의 設立計畫은 資金調整法과 如何한關係에잇슬지 注目된다 會社當局은 東滿關係의 鐵道라하야 樂觀코잇다

貯銀大邱支店開業

貯銀大邱支店은 本月二十日開業키로 決定되엇는데 初代支店長은 福田保一氏로 이미 開設準備員으로서 大邱에 赴任하얏다

現株業證券移轉稅 最低率適用을決定

有價證券移轉稅의 朝鮮內賦課에 就하야 朝取取引員以外의 現株業者에의 取扱은 取引員同樣萬分의 二賦課도잇고 萬分의 八의것도잇서 區區이나 今回總督府와 大藏省과 折衝한結果、證券賣買의 營業을하는者는 取引員同樣萬分의二의 最低率適用으로 正式決定하얏다한다

國有財產調查委員會

今春四月부터 施行된 國有財產法의 運用에 萬全을 期하고자 總督府에서는 國有財產調查委員會를 設置키로 되어 十二日同委員會臨時委員과 幹事를 如左히 任命하얏다

(委員) 林財務局長 村山稅務課長 山澤審議室事務官 井阪文書課長 水田司計課長 山地理財課長 碓井人事課長 湯村農林局長外九氏

(臨時委員) 大竹內務局長

(幹事) 村山稅務課長 高橋同課事務官

株式 買物殺到 爆發

今日의市勢【十三日】

前場爆發 前場東新은 休日을 지난今朝는 東新一圓高의 百十九圓四十錢 鐘新六圓十錢高의 二百二十六圓 大新一圓高의 六十八圓 日產一圓五十錢高의 六十八圓으로 各其奔騰寄付後 買物이 續出하야 東新百四十圓五十錢 鐘新二百三十一圓의 高價에까지 갓다가 結局東新百三十九圓四十錢 鐘新二百二十八圓六十錢 日產六十七圓三十錢으로 前引大新 朝新等은 傍觀이엇다

後場一息 後場은 東新百三十九圓三十錢 鐘新二百二十八圓으로 一息寄付後揉合이엇다

夜放大爆發!

戰局의 有利展開、金融의 緩和 日伊防共協定說을 傳하야 休日後의 今朝商狀은 大爆發을 告하얏다 오래간만에 東新은 百四十圓關門에 鐘新도 二百三十圓關門을 突破하고 其他도 이에 追隨하야 飛躍場面을 보이엇다 事變以來 떠러지기만하든 反動가튼 大反撥이엇는데 事變의 持久化、時局實際影響及 增稅等을 憂慮하지안흘수업는만큼 高價飛付買는 依然警戒되는 모양이나 戰勝時勢를 바라보고 當分은 押目買가 有利하리라는말이 有力하다

大市勢의 有無

日伊防共協定說을 傳하야 株式界에 一大센세이순을 이르키고 압흐로 二十五億의 事變費에 依한 大인풀레等을 豫想하고 躍進市況을 나타내엇다 勿論 投資會社에 依한 低落買支、日銀、興銀의 金融緩和策等도 好感되고잇엇든데다가 戰勝市勢가 期待되나 時局을 반드시 樂觀못할 幾多의 惡材料가 潛在한만큼 大勢로보아 目前大市勢는 바랄수업다는 冷靜한 觀測도 업지안타 그리고 地中海會議에서는 地中海警備協定案을 可決 英佛은 地中海全水面、蘇聯은 黑海警備를 擔當하게되엇다고 이로말미아마 歐洲政局의 摩擦이 더激化될는지도 모르나 目前急迫한 形勢에도 잇지안는모양이다

國債 新規買로 上進

【東京電話同盟】政府와 特銀의 金融緩和工作으로 金融市場은 繼續하야 順調推移이오 國債市場은 五厘利로 近來의 低價를 示하얏슴으로 某買持 好調와 相俟하야 新規買物이 擡頭하야 內國은 十五錢乃至廿錢上進하고 佛貨도 略上하야 五十五錢高이엇다

米期 新高價로 暴騰

前場暴騰 一休今朝는 晴天으로 颱風後의 阪地初付三十圓七十五錢인 六丁反高를 掛하고 中은 八圓六十五錢인 二丁高로 先限은 二十七圓七十六錢인 六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稍漸高價로 七節三十一圓突破인 十錢까지의 反撥을 맞아 八圓〇九錢까지 奔騰하엿다가 結局阪止三十圓九十錢과 共히 二十七圓九十一錢에 止場하다

後場往來 後場은 二十七圓九十九錢의 九丁高로 寄付後四節九十三錢에 强하고 五節九十七錢이엇다

七十萬石拂下
市勢에 無影響

政府는 今回百五十萬石買持中에서 爲先七十萬石을 今月二十日에 拂下하기로 되엿다 此拂下米는 昭和八、九、十年의 古米로 清京의 渡米에는 供할수업스나 端境期의 需給不安은 적이緩和케될수잇다 此는 弱材視하지안을수업스나 그러나 百五十萬石의 拂下를 完了한後에는 新米百五十萬石의 買上은 勿論이오 此外에도 非常時局에 適應할 軍用米로 幾百萬石을 더買上할지몰으는터이므로 拂下의影響보다는 買上의影響이 그얼마나 클것을 足히알수잇다 그래서 七十萬石의 拂下를 發表한後의 今日各地市場은 二百二十日의 颱風被害를 唯一한 强材로하기때문에 拂下의 影響은 烏有에 歸하고 東京은 十九丁高를 示하더니 其後繼續昂騰하야 高價不知의 形勢를 보이고잇다 今後大勢果如何?

颱風被害如何

二百十日과 白露의 兩大厄日은 無事하엿스나 二百二十日의 第三厄日은 颱風의 襲來로 結局理想的 天候를 混亂케하야 各地의 被害가 不少한모양이다 그 颱風의 範圍는 四國、關西、關東又는 北海道에 일으게까지 擴大되엿스니 被害의 程度도 적지안흘것을 足히알수잇다 아즉 被害의 調查가 미처되지안엇스므로 다만 臆測의 買物이 流行할뿐이나 各地의 漸次昂騰途程에 入하믈 보아서 被害가 不少하믈 足히알수잇다

株式高가加味

今朝各地市勢는 颱風의 被害甚大로 古米七十萬石拂下發表에도 不拘하고 稍히 高價를 示하자 때마침 株式市勢가 日支事變의 有利하게 展開됨에 따라 依然爆發을 告하게되므로 그 餘勢가 米界에까지 波及하야 颱風의 被害와 共히 突飛的 高價를 示함에 至하엿다

正米 各地商狀

京城軟化

現品薄에 持米側은 下値를 繼續하고잇는데 一方 買方도 月前弱含으로 一齊 傍觀狀態에 잇서서 商談은 全無이 하다

仁川不味

颱風의 被害甚大로 各地期米는 躍騰을 演하얏는데 市中高價待의 賣拔山積으로 人氣不振하야 買方도 被害의 程度 不明으로 買進을 躊躇하는 態度로 市勢十錢가량 下走不味를 演하얏다 穀良三等三三、二〇 四等三三、九〇 銀坊主三等三三、四〇 四等三三、一〇 多摩三等三三、八〇 四等三三、五〇 一等白米三四、〇〇 ㊀三三、八〇

釜山不勢

目前不味로 一般買氣萎縮되야 休日後이나 精米側의 當用向消極買가 散見될뿐이다 ㊁三等三三、二〇 四等三三、一〇 一等白米三三、九〇

大邱保合

期米는 急反撥을 演하얏는데 極度의 貨物拂底로 商談杜絕의 現狀이어서 人氣低迷의 形勢이다 ㊁三等三三、七〇四 等三三、五〇 一等白米一三三、六五

群山奔騰

依然 出廻皆無에 市中米激減의 此際內地商談도 傍觀박게업스나 今朝期米의 急騰에 件하야 市勢도 二十錢高를 唱하엿다 ㋑三三、七〇 三三、五〇 白米一四〇六

木浦躍進

繼續商談杜絕의 閑散한 市場인데 各地清算의 一齊上放으로 氣配도 二十錢高로 躍進을 告하엿스나 取引은 殆無狀態이다 ㋑三三、九〇 三三、六〇 白米一三、五五

市場六感

㊑……日伊防共協定說、連續戰捷古顯을 材料로 夜放되어 今朝前場은 鐘新二百卅一圓、東新百四十圓突破의 奔騰▲鐘新은 上擺反落價에서 約十五圓棒上 鐘新二百卅圓이 반작못하나 拂込十二圓五十錢을 猶豫하려는 借買…… 九月三日의 底値에서 中間買이면 ▲事變이 얼는 끗날것이 아니오 金融이 積極的으로 圓滑해진것이 아니니 無條件樂觀買는 尙早라고 輕侮하는것이 市勢를 이러케 치히는까닭?

㊌……颱風의 被害가 그얼마한 程度인지는 모르나 今朝一節까지도 別로 變이업는것갓더니 結局 爆發을 示하고 말엇다 此는 颱風被害를 强材로할뿐 아니라 株式高가 또한 加味다 ▲그런데 古米七萬石拂下는 何等의 材料化하지도못하고 有耶無耶에 歸하고말엇는걸▲實際의 拂下를 當하야 어떠한 行動을 할지는 모르나 拂下의 反面에는 買上할것이 남아잇스니 結局은 强材化할모양 外에 또얼마나될지 모르므로 政治的으론 强材뿐 (衆山)

今日財界 十三日

◆米 (單位錢)

	今日後止	先前日比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京城一等米一石	[illegible]	不變
京城白米一百키로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價三等	[illegible]	[illegible]
고무神戶現	[illegible]	[illegible]

◆株 / ◆商品

朝新 東新 鐘新 / 綿絲 綿花 人絹 砂糖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寄付	大引	高價	低價
朝取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朝取短期賣買高◆ ◆算定代引日步◆ ◆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海外經濟 十三日

[illegible]

銀行券 十三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製品◆ ◆京城綿糸布市勢◆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現物糖(ST)賣買中價二一·七五錢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京城物價 (十三日)

◆白米 (石、單位圓) 多摩錦特二六五 一等二五五
◆麥粉 (二二斤、單位錢) 二體內六、〇 카메리아 八、〇
◆肥料 (一叭、單位錢) 硫安 (各驛渡) 三、九五 過燐酸石灰 (仁川沖) 二、〇八 豆粕 (安東渡一手) 枚 二、二〇
◆紙物 (單位厘) A模造紙 (刷) 、二七 中質印刷紙 (同) 、二七 生紙纖內州手四貫四〇 八〇 朝鮮唐紙 (塊) 三〇 濃突紙 (全州一枚) 四五
◆燃料 (噸、單位錢) 撫順石炭 塊 一九、二〇 煉炭二六 三〇、九〇 京畿檢查木炭一等 (二〇斤) 一、一七
◆洋鐵 (一函、單位錢) 小野田二、一〇〇 二、〇八
◆砂糖 (百斤、單位錢) 白 三三、四〇 분밀一四、二〇 分蜜一八、八〇
◆鐵物 (單位錢) 亞鉛引平板赤四 (枚) 一、一九 丸釘 一四 (樽) 一七、四〇 鐵線六番 (一〇貫) 一〇、九〇 丸鐵二分 (同) 一〇、五〇
◆海產物 (單位錢) 乾明太魚 (駄) 二〇〇 乾大口魚 (斤) 、三六
◆染料 (斤、單位錢) 알치 (手) 七〇一五、〇〇 長 조 (手) 一、二〇 硫化黑 一、二〇 黃四、〇〇 鹽 四、〇〇 硫化一、六〇
◆塗料 (單位錢) 白페인트 (二二斤) 八、八〇
◆木材 (才、單位錢) 와니스 (日本石油一號) 一、一〇 에나멜 (普通色) 一、一〇 紅松 、二三 落葉松 、一八 杉材 (普通) 、一四 라왕 、一五
◆木綿 (反、單位錢) 毛木綿 一、一五 廣幅紗 一、五〇 文化絹 一、〇〇 眞珠紗 一、八〇
◆人絹 (反、單位錢)
◆毛絲 (封度、單位錢) 極細 二、五〇
◆牛皮 (乾百斤、單位錢) 京大皮 九〇、〇〇 小皮 八二、〇〇 中皮一等 七八、〇〇 同二等 六八、〇〇

期米 大 仁川海岸町

朝 取 益 益進證券 京城府黃金町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期米 福 仁川本町 吉村榮左工門商店

金·銀 德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電話本局② 3939 1572 代金引換販賣部 京城府明治町 振替京城 234